2. 다문화가족과 저출산·고령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저출산·고령화와 연결시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식상하면서도 새로운 측면이 있다.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문제점이 다각도로 지적되면서도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은 저출산·고령화에 일정정도 기여를 한다고 당연시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식상한 측면이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이 어떻게 저출산·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 이를 검증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인간의 도구화 자체에 대한 언급이 윤리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이민청까지 검토 하는 상황에서 그 관련성에 대해 논쟁을 피하거나 과학적 접근을 유보하는 것은 고령화를 둘러싼 접근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를 살펴보면서 이미 정형화된 결혼이주여성과 저출산·고령화 논쟁을 극복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그 논의의 출발점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일반적인 논의는 이민의 출산형태에서 알 수 있다. 먼저 이민 등을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 출산율이 본국보다 낮게 나타난다. 즉, 국제이동자는 이동지역에서 적응이 쉽지 않거나 정보가 부족해 출산을 연기함으로써 출산율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UN, 1956; 이삼식 외, 2007; 117). 또한 출산율이 높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국제이동자가 대부분 미혼이나 자녀가 없는 부부인 경우가 많아 출산수준이 높은 경향도 있다는 설명이다.

〈표 3-4〉 일부 국가의 인종 · 국적별 출산율 차이[39)]

(단위: 명)

구 분	합 계 출 산 율(TFR)		순이동률 %
	전 체	인 종 별	
미 국	2.1('07년) 2.0('03년)	·백인 1.7, 히스패닉 3.0, 흑인 2.4(2003) ·멕시코인 3.51, 중국인 2.26, 한국인 1.57 *미국이민 10개국 여성 평균출산율 2.86명> 출신국 출산율 평균 2.32명	3.10('07)
영 국	1.74('06년)	·영국인 1.67, 인도 2.21, 파키스탄·방글라데시 4.90(1996년)	2.18('05)
스위스	1.44('07년)	·스위스인 1.34, 옛유고슬라비인 2.41, 터키인 1.91(1997년)	3.58('05)
독 일	1.37('06년)	·독일인 1.39, 터키인 2.40(1996년)	2.18('05)
이탈리아	1.33('06년)	·이타리안 1.26, 모로코인 2.14, 알바니아인 2.60, 튀니지인 3.30, 이집트인 3.40(1999년)	2.07('05)

이는 이동 후 일정기간 미뤄왔던 결혼 또는 출산을 함으로써 비이동 인구보다 출산율이 높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삼식 외는 이를 통해 OECD국가의 경우 이민자의 출산력이 비이민자의 출산력보다 높으며 이는 이민자가 이민 전에 속해있던 사회의 출산 행태를 어느 정도 따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삼식 외, 2007: 118~119).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에 의해 다문화사회로 발전한 다른 나라와 달리 결혼이주여성들의 증가로 인해 시작된 특징이 있다. 더구나 결혼이주여성은 농촌 노총각의 결혼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추진되면서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고유특징을 강화하고 있다(임형백 외, 2009; 임형백, 2009).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한 계층이 저 발전된 국가에서 배우자를 데려오는 것은 일본이나 대만 등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다만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전개과정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급진적이고 비대칭성이 강한 양상을 보이며 다문화사회로 접어

39) 이 표는 이삼식 외가 정리한 것이다. http://migrationinformation.org/Resource, http://en.wikipedia.org/wiki/Main_Page, http://paa2007.princeton.edu/download.aspx?submissionId=70869를 참고 정리한 것을 옮긴 것이다.

들고 있어 구별된다.[40]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접어든 것은 정부정책에서 기인한다. 최종렬 외에 따르면 정부가 중심이 된 다문화정책의 경우는 이주여성을 통해 무너진 한국의 가부장적 핵가족제도를 지탱하는 하나의 방안이었다.[41] 또한 국제적 인권문제와 관련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핵심에는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해 줄 인적자원으로 이주여성을 이용하려는 전략도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반이주 정책을 고수하던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나서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라는 이름을 빌어 외국인 여성의 완전이주를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42]

〈표 3-5〉 농촌거주인 · 농림어업인과 외국여성 혼인비율

(단위: 건, %)

연도	총국제결혼건수 (A)	농촌국제결혼 건수(B)	농림어업인 국제결혼건수(C)	구성비(%)	
				B/A	C/B
2006	30,208	8,746	3,525	28.95	40.30
2007	28,580	8,016	3,171	28.05	39.56
2008	28,163	7,853	2,472	27.88	31.48
2009	25,142	6,839	1,987	27.20	29.05
2010	26,274	7,219	2,023	27.47	28.02

40) 양순미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시원을 1990년대 초반 농촌 후계자들의 결혼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국제결혼에서 찾으며, 우리나라의 다문화는 사회적 관심이 비교적 짧은 시기에 형성된데다 다문화를 인식하는 관점이 획일적이고 단편적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다문화를 '문화적 격차'나 '적응'의 차원으로만 바라볼 뿐 '개발가능한 자원적 가치'나 '문화산업화 차원'으로의 인식은 미진하다고 주장했다(농민신문 3월18일자 15면).

41)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여러 가지 고정관념에서도 나타난다. 대부분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 해 줄 영웅', '돈 때문에 팔려온 불쌍한 여자', '한국남성의 성적 욕구를 풀어주기 위해 인신매매성 결혼을 한 여자' 등으로, 이는 대중매체를 통해 '영웅' '희생자' '성상품'으로 전형화되고 있다(최종렬 외, 2008: 149~151). 아울러 언론에서 다문화가족이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2005~2006년 경이다.

42) 1998년 국적법을 개정한 바 있는 정부는 2004년 결혼이주여성 귀화요건을 완화하도록 국적법을 다시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한국 배우자와 결혼해 한국에 2년이상 거주하든지 아니면 한국배우자와 결혼한 지 3년과 한국거주 1년이 되든지 둘 중의 하나가 충족되면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반 귀화요건(최소 5년 한국 거주 및 능숙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습득 등)에 비해 훨씬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이다(최종렬 외, 2008:155).

이러한 양상은 농촌지역에서 뚜렷하게 전개되고 있다. 실제 농촌에서 결혼하는 남성들의 30~40%가 결혼이주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한다는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과 함께 농촌을 중심으로 정착하면서 인구구성면에서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여성 농가인구에서 이주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0.5%, 2010년 1.8%, 2015년 3.7%, 2020년에는 6.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19세 미만 농가인구에서 다문화가족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3~2.5%에서 2020년에는 24.5~49.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주여성농업인이 평균 1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15년 후 19세 미만 농가인구의 24.5%를 차지하고 평균 2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절반 정도가 다문화 자녀로 구성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 표는 향후 결혼이주여성이 농업에서의 역할과 다문화가족 자녀가 향후 농가인구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지를 가름할 수 있게 해준다.

〈표 3-6〉 결혼이주여성의 추정 출산율과 비중

구 분	전체 농가인구에서 이주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	여성농가인구에서 이주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	19세 미만 농가인구에서 다문화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	
			(1명 출산)	(2명 출산)
2005	0.3	0.5	1.3	2.5
2010	0.9	1.8	7.5	15.0
2015	1.9	3.7	16.0	32.0
2020	3.2	6.2	24.5	49.0

2010년 발표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출산에 대해 접근하는 자세를 통계적으로 보여준다(김승권 외, 2010). 이 통계에 따르면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율은 평균 0.9명으로, 농촌에 해당하는 읍면지역은 1.1명이고 도시로 분류되는 동지역에서는

0.8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자녀수는 현존 자녀수와 추가희망자녀수를 더한 기대자녀수를 통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표 3-7〉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 현배우자와의 현존자녀수

(단위: % 명)

구분	현존자녀수 분포					평균 현존자녀수
	0명	1명	2명	3명이상	계(수)	
전체 결혼이민자						
전체	39.3	38.4	18.2	4.1	100.0(120 ,844)	0.9
동 지역	43.1	37.2	16.6	3.1	100.0(86 ,485)	0.8
읍·면 지역	29.7	41.4	22.3	6.6	100.0(34 ,359)	1.1
여성 결혼이민자						
전체	38.3	39.0	18.6	4.0	100.0(110 ,722)	0.9
동 지역	42.2	38.0	16.9	2.9	100.0(77 ,342)	0.8
읍·면 지역	29.2	41.5	22.6	6.6	100.0(33,380)	1.1
남성 결혼이민자						
전체	50.3	31.5	13.9	4.3	100.0(10,122)	0.7
동 지역	51.0	30.8	14.0	4.2	100.0(9,143)	0.7
읍·면 지역	43.9	38.2	12.7	5.2	100.0(979)	0.8

현 배우자의 전체 기대자녀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읍면지역의 경우 기대자녀수는 1.7명이고 동 지역 1.3명이다. 이 수치는 실태조사 시점인 2009년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율을 보면 의미를 갖는다.[43] 이 정도의 출산율은 앞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측치를 근거로 향후 19세 미만 농가인구 중 다문화가족 출신의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예측하게 한다.

43) 우리나라 가임여성들의 출산율은 2000부터 급속히 떨어져 2009년 가장 낮은 1.09명을 기록했다. 더구나 이 수치와 다문화가족여성들의 기대자녀수를 비교하면 결혼이주여성 유입을 통한 인구증대 전략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이 같은 인구증대 전략을 갖고 정책의 성공을 평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표 3-8〉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별 현 배우자와의 기대자녀수

(단위: % 명)

구분	평균 현존자녀수	평균 추가희망자녀수	기대 자녀수
전체 결혼이민자			
전체	0.9	0.5	1.4
동 지역	0.8	0.5	1.3
읍·면 지역	1.1	0.6	1.7
여성 결혼이민자			
전체	0.9	0.5	1.4
동 지역	0.8	0.5	1.3
읍·면 지역	1.1	0.6	1.7
남성 결혼이민자			
전체	0.7	0.5	1.2
동 지역	0.5	1.2	0.7
읍·면 지역	0.8	0.4	1.2

더욱이 다문화가족의 탄생은 농촌마을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못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을은 우리나라 농촌의 기본적인 구성단위이다. 보통 마을은 30여 가구 정도로 구성되는데 이중 2~3가구에서 5~6가구가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될 경우 마을은 평균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새로운 관계 등으로 공동체의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예상된다.[44]

물론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실제로 현시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은 평균 0.9명에 불과하다. 이는 본국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출산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격히 낮다는 것이다. 당초 저 발전국에서 유입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정부의 전략대로라면 출산율이 본국의 비슷한 연령대의 정도는 아니지만 현 수준보다는 훨씬 높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예상과는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는

44) 농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도시지역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에 있어 다문화가족이 농촌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도시와 크게 다르다. 실제로 다문화가족이 존재함으로써 마을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인구내파(population impolsion)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앞에서 밝혔듯이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이 마을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양적·질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 자체로 새로운 방법론을 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다시한번 밝혀 둔다.

것이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출산 시 우리나라의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수를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남편과의 나이차, 남편과 시부모의 강요, 경제적 여건, 신체적 상태, 스트레스, 질병, 가족갈등, 배우자부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녀수를 결정짓는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표 3-9〉 여성 결혼이민자의 성별, 지역, 혼인상태 및 출신국별 가족구성

(단위: % 명)

구분		본인	본인+자녀	부부	부부+본가가족	부부+배우자가족	부부+자녀	부부+자녀+본가가족	부부+자녀+배우자가족	계(수)
지역	동 지역	3.8	3.1	28.3	1.4	8.7	38.3	3.7	12.7	100.0 (76,947)
	읍·면 지역	1.5	2.3	17.2	1.4	13.8	32.2	4.0	27.5	100.0 (32,788)
혼인상태	유배우	1.1	1.2	26.0	1.5	10.6	37.9	3.9	12.8	100.0 (105,646)
	사별	41.8	58.2	0.0	0.0	0.0	0.0	0.0	0.0	100.0 (981)
	이혼	57.7	42.3	0.0	0.0	0.0	0.0	0.0	0.0	100.0 (2,998)
출신국	중국(조선족)	5.4	4.6	28.1	1.9	4.4	39.6	5.3	10.8	100.0 (32,208)
	중국(한족)	3.4	1.9	34.3	1.1	11.7	33.0	2.9	11.6	100.0 (30,585)
	베트남	1.4	1.5	16.4	1.8	17.6	29.4	4.0	27.9	100.0 (23,423)
	필리핀	1.4	3.4	13.9	0.9	9.9	42.4	4.1	23.8	100.0 (7,899)
	몽골	1.5	1.9	22.9	0.7	11.7	40.9	3.0	17.3	100.0 (1,667)
	태국	1.1	2.7	21.8	0.8	8.7	39.3	1.7	24.0	100.0 (1,604)
	캄보디아	1.4	2.7	12.7	0.5	16.1	27.6	1.2	37.8	100.0 (2,418)
	일본	0.3	2.9	14.3	0.2	4.0	56.4	1.0	20.9	100.0 (4,611)
	북미·호주·서유럽	2.0	2.0	30.6	0.3	5.2	48.1	1.3	10.5	100.0 (1,377)
	기타	1.5	2.4	20.9	1.1	9.1	43.3	3.2	18.5	100.0 (3,943)

고령화도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율을 분석하는데 있어 의미를 갖는다. 즉 농촌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정착과정에서 시부모를 모시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부부이외 시부모 등과의 동거비율이 41.3%에 달하는 현상이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부부만의 동거가 아니라 시부모의 봉양 등을 위해 효 문화가 강한 베트남·캄보디아 여성들이 선호되는 추세도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이다.

여성론자들은 출산율이나 고령화와 관련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이해하는 접근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자본·노동이 국경을 초월하는 이동성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이주의 여성화(feminazation)는 분명 새로운 현상이다. 이주의 여성화는 이주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을 압도하는 현상으로, 여성들이 전형적으로 '여성의 일'로 취급되는 돌봄 노동, 즉 가사, 육아, 환자봉양 및 성적 봉사 등과 관련된 노동을 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것을 의미한다(김현미, 2006: 14~15: 황정미, 2009).[45] 이주문제는 구조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이주체제(migration regime), 이주제도(migration regulations), 개별이주자 등 세 차원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주체제는 이주에 관여하는 각국의 법이나 제도의 속성, 송출국과 수용국의 관계, 이주자의 진입을 결정하는 조건과 거주, 고용에 관한 권리들을 규정하는 통치체제를 의미한다.

이주제도는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공식적 국가기구와 중개업자, 비공

45) 김현미에 따르면 이주의 여성화는 송출국과 수용국 모두에서 생겨나는 여성의 경제적 또는 문화적 빈곤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는 고부가가치 이윤이 창출되는 영역에만 투자한다는 경제논리로 기존에 육아나 보육, 교육, 노인돌보기 등에 쓰이던 공공복지 예산을 크게 삭감시켰고, 기업도 직원에 지급하던 각종 특별수당을 줄여나갔다. 기존 핵가족이 수행했던 '보호'의 역할이 침식되고 가정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이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모든 사회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가족의 위기'라는 것이다(Castles and Davidson, 2000). 특히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임금노동시장 진출이 많은 나라들의 경우 '돌봄노동의 공동화'를 메우기 위해 임금이 저렴한 다른 나라 여성들의 노동력을 사용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의 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가족구성과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는 '이주인력'으로 동원된다고 분석하고 있다(김현미, 2006: 14~15).

식적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일련의 제도들을 의미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윤을 만들어내는 이주산업의 규모가 결정된다. 이와 더불어 고유한 역사, 사회적 정체성, 자원조건에서 이주를 결정하는 개별이주자의 상황을 고려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김현미, 2006: 16).

이 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혜순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사회의 가부장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불러들여진 것으로 이 기대와 요구는 이들을 법적·사회적 존재를 규정짓게 된다고 본다(2008: 59).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의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족만들기, 가사노동과 출산, 양육 등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적 시혜는 한국남성과 한국사회에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이라는 여성계의 지적은 한국사회 다문화담론의 가부장적 성격을 드러내는 핵심이라는 지적도 있다(김영옥, 2008). 젠더적 시각에 따른 우리나라의 다문화 담론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엄격한 가부장제 가치의 실천자와 각종 시혜정책의 수혜자로서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유지를 위한 도구적 존재, 한국사회와 구별되는 차별적 성역할의 담당자로서 규정되고 있다. 이처럼 위치 지워진 결혼이주여성들은 인종적 차별과 젠더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이중의 타자일 뿐으로 간주된다(홍지아, 2010: 644~645).

하지만 여성주의나 젠더적 시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입장에서 분석했다기 보다는 다분히 기존체제에 대해 비판적 반성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주를 결정했으며, 이주 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정착하게 됐는지에 대한 미시적 접근이 부족하다. 실제로 김현미의 경우 젠더적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개별이주자의 특수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음에도 이주체제·이주제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근무 외(2009)는 국제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젠더적 관심사인 가부장제적 관점과 도구적 존재, 정책의 시혜자, 차별적 성역할의 담당자로 국한되는 이해의 방식이 어떻게 수정되는가를 역동적으로 보여준다.[46]

따라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둘러싸고 현실적으로 가장 민감한 '저출산·고령화'의 관련성을 이해할 때조차도 도구적·차별적 관점이나 여성주의에 고착된 접근보다 행위자인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은 결국 에스닉 그룹으로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정착과정에서 가부장적 관점과 도구적 존재로 간주하는 시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어떻게 형성하고 활용하는가로 귀결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현하는 길을 비로소 찾을 것이다.

3. 다문화가족과 사회자본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미래세대의 욕구충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처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보고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진보와 생존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동의 행동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엄청난 기근을 없애기 위해서도 그러한 성장이 절대적으로 요청되

46) 이근무 외는 국제결혼 한 국내 남성 배우자 10명에 대해 심층면담을 거쳐 자료를 확보했다. 연구결과 결혼 동기는 도구적 성격이 강했는데 이후 동업자관계를 거쳐 주고받을 수 있는 교환가치의 비동등성에 따라 긴장과 갈등이 생성되며,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관계가 종료되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에다 도구성까지 강화됐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문화의 해체를 거쳐 배우자 문화와의 접점에서 재구성을 통해 새로운 디아스포라적 위치, 즉 융합된 형태의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2009: 135~162).

Abstract

The study is entitled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Rural Area of Korea'. This study focuses on rural community which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lti-cultural phenomenon in Korea very well and further attempts to find out the alternatives of the problems which take place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First of all, the study tries to objectively understand the reality in which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 multi-cultural families contribute to overcome the problem of rural exodus, low birth rate and aging in rural area. Especially, the purpose of the report is for the fiscal strength by curtailing the welfare expense through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self-reliance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families in rural and local communities. Moreover, the report aims to the strengthening of the relation resources distinguished by cooperation and reciprocity in rural area by utilizing the merits which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families have youthfulness, high education and various background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points out beginning

the genuine multi-cultural society by reflecting the reality which orients multi-cultural society but reveals itself assimilationism.

Therefore, the study emphasizes the views of social capital theory to heighten the sustainability of rural area as well as the ethnicity theory which has not been discussed earnestly in our society.

Also, the study is based on the views of recognition-redistribution which is insisted in multi-cultural theory currently and overcoming the asymmetry and instrumentalism of international marriage which are pervaded in multi-cultural rural area.

To support these arguments the study makes an attempt to modelling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Rural Area of Korea' through the statistical raw data of '2009 Fact Finding Survey of National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was conduced by KIHAS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We could find out the fact that family relation is most of all important and then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social relation along with the fact that family relation, social relation and government policy positively effect on the successful settlement and satisfac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families based on statistical analysis. Specially, in 3 types modellings of this study we could understand the fact that the multi-cultural policies are more effective in strengthening the

social capital than adding their children and these results are the new plans for realizing practically multi cultural society in the future.

Also, this study tries qualitative research to find out the deep structure of settlement and expectation in the view point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families themselves. We could find out what the essences of settlement and expectation in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families are through the faithful approaches of phenomenological method.

In addition, these approaches of phenomenological method are differentiated from applying partly to the time orientation and space orientation which were integrated in one orientation previously.

The essences of experiences in the study are classified into 12 categories which are the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marriage, rural area in Korea, cultural gap, weather disparity, isolation, family conflict, children nurture, phobia of violence, double torture as foreigner, economical difficulty, encounter of helpers, rediscovery of hop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speak their expectations for their futures and their families, after discovered their hopes. These are mentioned as the essences of expectations. The essences of expectations are classified into 7 categories which are the reestablishment of identity, active adaptation, the construction of true multi-cultural society, the desperate regards of families, the paradigm change of multi cultural education, the job opportunity, the community support. The essences of expectation in the view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s from first to last to find out the clu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 society.

요약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이해를 위해 동화주의 관점, 더 나아가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면서도 내용면에서는 동화를 강조하는 경향에 대한 성찰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함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축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기본적인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도구적·가부장적 사고에 묶인 인식을 극복하고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들의 자아실현과 행복증진은 물론, 이들의 참여와 협력을 실현해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확충하는 길임을 제시하는데 있다.

□ 본 연구는 농촌의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족과 마을, 지역사회, 공동체,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등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그들이 가족과 마을, 지역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자본을 강화해 갈 수 있는 지를 탐구하는 것이 핵심목적이다.

2. 연구내용

□ 본 연구의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촌 다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흐름을 소개하고, 현재 지배적인 특징으로 비대칭성을 지적했다.

□ 본 연구의 제Ⅲ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다문화주의와 반다문화주의에 대해 우선 설명하고, 다문화의 배태성(embeddedness)과 다문화 논의에 에스니시티(ethnicity) 이론의 접목 필요성, 성공적 적응에서 성공적 정착으로 전환, 결혼이주여성과 저출산·고령화, 결혼이주여성과 사회자본,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을 위한 모델링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 제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관점을 위한 방법론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되는 통계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 분석방향 등에 대해 간단히 요약·정리했다.

□ 제Ⅴ장에서는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의 원자료를 활용해 모델링의 가능성을 검증했다.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전체 15만4,000명의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13만1,000여명의 명단을 확보, 이중 7만3,000여명에 대한 방대한 조사로 이중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읍·면지역에 국한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포아송 회귀분석, AMOS 분석을 제한적으로 진행했다.

□ 제Ⅵ장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연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지역 1개면(面)을 정한 뒤 그곳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가족들과의 개방형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정착과정에서 이들의 경험과 기대본질을 '현상학적 방법'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 제Ⅶ장에서는 본 연구의 양적·질적 분석 결과를 재해석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고,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함의를 통해 여러 가지 정책적 제언을 했다.

II.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와 농촌 다문화의 특징

1.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논의

가. 다문화사회의 도래

□ 우리나라의 다문화현상은 실질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다문화정책도 결혼이주여성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 통계청 인구동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경우 1991년 '한국남자+외국여자'는 연간 663건, '한국여자+외국남자'는 4,349건으로 월등한 격차로 '한국여자+외국남자'가 많았다. 이러한 추세는 1992년 '한국남자+외국여자'의 사례가 2,057건으로 급격히 늘고 '한국여자+외국남자'는 3,477건으로 줄면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 특히 이후 1995년 '한국남자+외국여자'의 국제결혼 건수가 1만365건이었고, '한국여자+외국남자'의 경우는 3,129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처럼 두 단계에 걸쳐 큰 변화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바로 1992년 현재의 다문화사회를 특징짓는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봤다.

나. 기존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

□ 2011년 6월말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130여만명은 전체 인구 4,950만명 대비 2.6%에 불과하고, 결혼이주여성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12%이며 전체 인구대비 0.3%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인구 중의 외국인비율이 10%정도에 도달할 때 다문화사회로 인식하는 국제흐름과 비교할 때 통계적인 차원에서의 다문화사회와는 거리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에 대한 논의는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 다

문화현상은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한다. 논의 내용은 사회학·정치학·법학·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다.

□ 최정혜는 2005~2010년까지 발간된 65편의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및 부부관계 적응에 관한 연구'가 23.1%로 가장 많았고, '자녀의 심리적 적응연구'와 '문헌연구'가 각각 18.5%, '한국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가 15.3%, '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13.8%,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 및 일반인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10.8%로 순이라고 밝혔다. 연구방법의 경우 계량적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질적 연구는 전체의 1/4정도로 조사됐다.

□ 이러한 논의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현상이 하나의 주요 흐름임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맞춰 9개 정부부처에서는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내놓으며 적응을 돕고 있다. 예산의 경우도 2006년 12억원에서 2011년 1,162억원으로 거의 100배 가까이 증가했다. 더욱이 각 시군별로 설립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해 다문화가족관련 모든 내용을 원스톱서비스하기 위해 계속 늘고 있다.

□ 하지만 여전히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관련 문제는 해결되기보다 증폭되고 있다. 이는 다문화관련 접근방법이 비효율성에다 지속성이 없어 오는 2018년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400만명에 달하는 상황인데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현실진단과 함께 이로부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도출돼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2. 농촌 다문화의 특징

□ 이 같은 현실적인 지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촌 다문화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천착했다. 이는 농촌다문화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함으로

써 향후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모델링을 하기 위함이다.

□ 2010년 출간된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발췌해 실태를 알아본 결과 그 특징은 관계의 비대칭성(asymmetry)으로 요약됐다. 비대칭성은 경제학에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각 거래주체가 보유한 정보에 차이가 있을 때, 그 불균등한 정보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일컫는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비대칭성이 농촌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사이에서 강하게 존재함을 발견했다. 특히 비대칭성은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간의 나이차이, 혼인형태, 장애빈도, 경제상태 등에서 잘 나타난다.

□ 비대칭성은 당초 정보나 자원의 불평등에서 기인했지만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시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과정은 인정-투쟁의 방식으로 나타나거나 자기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통해 주류사회와 관계를 역학적으로 파악하는 에스니시티(ethnicity)에 입각해 재조정됨을 알 수 있다.

□ 현재 별거나 이혼 등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급증하는 것은 일종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보나 자원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고 인정과 분배적 정의가 가능한 상태에서 국제결혼을 모색하는 게 절실한 시점이다.

I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주의의 재 고찰

가. 다문화주의: 반다문화주의를 넘어서

□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주요 이민국가들의 동화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다문화주의는 동화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노력이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자유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분배적 정의를 강조하는 윌 킴리카와 실존철학에 기초해 인정의 정치학을 중시하는 찰스 테일러로 대표되고, 양측의 입장은 오늘날까지도 서구 다문화주의 이론적 논의의 중심에 있다.

□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2000년대 들면서 미국의 9.11테러와 2009년 세계 경제위기 등을 거치며 반다문화주의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문화사회의 실현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반다문화주의 분위기는 일자리감소와 복지축소라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와 맞물려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는 인적 물적 교류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다문화주의와 반다문화주의의 대립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을 하나의 통합된 시각으로 보는 접근이 절실하다.

나. 다문화현상의 배태성

□ 인류역사상 단일민족은 존재하기가 어렵다. 전쟁·정복·이주·교류·이산이 반복된 역사 속에서 어느 민족도 순수혈통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백의민족 혹은 배달민족으로 일컬어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민족이 다문화성을 갖고 있어 이를 다문화의 배태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 다문화주의: 에스니시티(ethnicity)

□ 다문화주의의 관심은 무엇보다 주류사회가 중심이 돼 어떻게 이민자나 이주자와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이다. 여기에서 베리의 이주민이나 이민자의 정체성 지향·태도적 차원, 테일러와 킴리카의 인정-재분배의 관점, 공간을 기초로 한 상호문화적 관점을 수용해 다문화주의

.
. . …”
<17> “ ‘ ‘ .”
<9> “
… … … … …
… .”

7) 자녀문제

자녀문제와 관련한 범주는 ‘저출산’과 ‘자녀걱정’으로 나눠진다. ‘저출산’의 경우 출산못함, 학원도 못보냄, 학습지도 못함 등의 하위범주로 구성되고, 자녀걱정과 관련해서는 놀릴까봐 걱정, 외국인 죄책감, 자녀 위해 국적취득, 이름을 바꿈, 잘 버텨줘야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아이를 제대로 낳을 수 없는 구조와 아이들 때문에 국적과 이름을 바꾸는 등 정체성의 변화까지도 시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17> “ … .
.”
<14> “ …
…”
<1> “ …
… .
, .
, …”
<14> “ … …”
<17> “ … …
… .
.
… …
.”

8) 두려움

결혼이주여성들은 폭력에 대해서도 특별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실

제로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들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해 이혼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음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했다. 이들은 평온한 듯해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폭력적 상황에 일말의 두려움을 보이는 상황이다.

<16> “( )
. .”

9) 외국인으로서의 이중고

결혼이주여성들은 정착과정에서 표면화됐든 표면화되지 않았든 다양한 차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주제에는 ‘무시와 차별’, ‘이상한 시선’, ‘편견과 고정관념’, ‘불편한 차이’ 등으로 범주화된다. 무시와 차별에서는 지랄한다고 하거나 외국인이라고 깔봄, 돈을 적게 주거나 보이지 않는 벽으로 인해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이상한 시선의 경우 수근거림, 은근한 따돌림, 자모회에서의 거리감, 머리부터 발끝까지 쳐다보는 것 등으로 인해 불편을 당하는 상황이다. 편견·고정관념과 관련해서는 본국을 안 밝히거나 색안경을 끼고 봄, 중국제 무시 등의 하위범주로 세분화됐다. 중국제 무시의 경우 제품은 물론 이러한 고정관념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생각에 상처를 받는 것이다.

<1> “ ,
…
.”
<11> “
…”
<1> “
…”
<17> “ … …

. .

… … .”

<11> “

. .”

<15> “ .

.”

<15> “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10) 경제적 어려움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은 첩첩산중이다. 그 가운데 가장 옥죄는 어려움은 경제적 궁핍함이다. 이 주제는 ‘빠듯한 생활’, ‘미안함, 속상함’이라는 하위범주로 나뉜다. 빠듯한 생활로 인해 여행을 갈 수 없거나 남편실업상황 등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친정부모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드리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마음의 부채까지 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17> “ … …

? …

…

… …

…

…

.”

<9> “ … … .”

11) 정착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

결혼이주여성들은 계속 밀려오는 어려움을 인해 고통 받으면서도 나름대로 정착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고마운 사람들도 만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정착에 도움을 주는 주체로는 '가족', '이웃', '지역단체', '이주여성동료', '직장의 도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나뉘고 있다. 하위범주로는 신랑이 잘 해줌, 남편의 따뜻함, 친정식구 도와줌, 딸래미 같다고 함, 전화해도 괜찮음, 주변에서 언니가 도와 줌, 고모가 다 얘기해줌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웃의 범주에는 잘 해줌, 이웃이 가르쳐 줌, 정이 많음으로 분류됐고, 지역단체의 경우 농협에서의 도움이 눈에 띄었다. 올해부터 시작된 농협다문화대학 등을 통한 정착지원이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주여성과의 교류에서는 주변의 많은 중국 사람과 베트남 친구, 한 달에 한 번씩 모임 등이 도움이 됐다. 직장의 경우 말을 배울 수 있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동료부터도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는 아주 제한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10> "
…
. ( )
.
.
.
,
.
.
.
.
."
<4> "
.
.
.
…
.
.
."
<12> "
.
.
,
.
….
.
…"
<3> "
.
."
<14> "
,

.”

<17> “ . …

”

<12> “ … . …”

<4> “ . … . .

… … . ??

. .”

<1> “ ,

.”

<16> “ , .

. .

. .

.

… .

. .

. .”

<12> “ … ? . .”

12) 희망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행복의 재발견으로 구분되는 범주에는 꿈을 키우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며 새로운 각오로 구체화되고 있다.

<3> “

.

. .

. .

.”

<15> “ .

.”

<10> “ . .

.

…”

농촌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착과정에서 직면했던 경험의 본질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6-5〉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범주화 결과

시간지향성 ↓ / 공간지향성 →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하위범주	범주	주제
	거창하지 않음 / 친척, 친구, 남편친구, 얼떨결에, 결혼회사, 여행, 종교	쉬워짐 / 다양한 경로	국제결혼
	큰 차이 없음 / 농사는 어려움	농촌의 어려움	농촌이해
	너무 매워, 얼얼함, 냄새남, 만들 줄 모름 / 한국말 어려움, 겁남, 말 안통해요, 머리아픔, 답답함, 쓰기 어려움, 뜻 모름 / 인사법 다름, 식사예절 모름, 지저분함, 항상 먹을 것 대접함, 항상 양말신음	음식으로 인한 어려움 / 언어적 어려움 / 생활방식차이	문화적 어려움
	너무 추움	겨울날씨	기후차이
	주눅듬, 무관심, 바쁜 일상 / 젊은 사람 없음, 친구 없음, 노인만 있음 / 마음을 터놓지 못함, 사람이 없음, 흉이 됨 / 친정을 돕고 싶음, 친정부모 보고 싶음, 갈수 없는 상황임	사람이 없음 / 믿지못함 / 갈 수 없음	고립감
	남편무시, 무관심, 부부싸움, 소리지름 / 시어머니의 의심, 고부갈등, 참견, 말 안함, 말 안통함, 기분 상함	남편과의 갈등 / 고부갈등	가족갈등
	출산 못함, 학원 못 보냄, 학습지도 못함 / 놀릴까 걱정, 외국인 죄책감, 자녀위해 국적취득, 이름을 바꿈, 잘 버텨줘야	저출산 / 자녀걱정	자녀문제
	폭력	남편폭력	두려움
	지랄한다고 함, 외국인이라고 깔봄, 돈 적게 줌, 보이지 않는 벽 / 수근거림, 은근한 따돌림, 자모회의 거리감, 머리부터 발끝까지 쳐다 봄 / 본국 안밝힘, 색안경, 중국제 무시/뒤에서 어쩌구저쩌구, 다른 것은 틀린 것, 불편한 차이	무시, 차별 / 이상한 시선 / 편견, 고정관념	외국인으로서 이중고
	여행 못함, 남편의 실업이 발등의 불, 먹고살기 힘듦 / 친정부모 용돈 못 드림	빠듯한 생활 / 미안함, 속상함	경제적 어려움
	신랑이 잘해줌, 남편이 따뜻함, 친정식구 도와줌 / 딸래미 같다고 함, 전화해도 괜찮음, 주변 언니가 도와줌, 고모가 다 얘기해 줌 / 잘해줌, 이웃이 가르쳐 줌, 정이 많음, 농협에서 도와줌, 중국사람 많음, 베트남 친구 있음, 한 달에 한 번씩 모임, 놀러 옴 / 직장에서 말 배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됨, 아르바이트 사모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 / 이웃 / 지역단체 / 이주여성과의 교류 / 직장의 도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착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
	꿈을 키움 / 기대감 / 새로운 각오	행복의 재발견	희망

나.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정착과정을 거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갖게 되는 기대의 본질은 모두 62개의 의미단위를 통해 7가지의 주제군으로 분류됐다. 즉 '정체성의 재정립', '적극적인 적응', '진정한 다문화사회 구축', '가족배려 절실', '다문화 교육 패러다임 바꿔야', '일자리 확대 절실', '지역사회 참여' 등이다.

1) 정체성의 재정립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생활세계(life world)에서 다양한 정착경험을 거치며 무엇을 수용하고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타결해야할지 모색한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을 거친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하거나 행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른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타인과 관계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때로는 '확 들이 받는 태도'을 보이기도 하지만 꿋꿋한 인내심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자 애쓰고 있다.

<3> "
.
… .
."
<15> "
. ."
<17> "
…
. . …
.
…
."
<17> "
… .
… ."
<9> "
…. …"
<17> "
.
…"

2) 적극적인 적응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낯설고 물 설은 한국의 농촌지역에서 적응하기 위해 마음을 추스른다. 이들은 그래서 빠른 적응을 위해서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또한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혹은 한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적응에 속도를 낸다.

<11> “ .
… …”
<9> “ . . .”
<9> “ . . .
. .”
<3> “ .
.”
<15> “ . .
… .”
<1> “ , .”
<12> “ .
. .”

3) 진정한 다문화사회 구축

결혼이주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애쓰면서도 한국 사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영원한 ‘이질적 타자’가 아니라 ‘다르지만 공존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에서 이들은 많은 회의를 갖게 된다. “한국이 다문화사회를 표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반문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이는 일방적인 동화주의를 지양하고 상호주의 입장에서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구축해 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구체적으로 일방적인 동화주의 정책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나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이해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모습이나 말, 태도가 다른 자녀들을 한국인으로서 똑같이 대우해

주길 원하고 있다. 자신의 모국문화를 소개하고 싶은 욕구도 적잖이 갖고 있었다.

<1> “
.”
<11> “ ~ ,
. ,
.
( ) , ,
…”
<1> “ ,
.”
<15> “ , , ,
…”
<15> “ TV , … … ,
. … , ,
, ,
…”
<11> “ ,
. ,

. .”
<11> “

. .”
<15> “ .”
<15> “ .”

4) 가족의 배려절실

가족은 결혼이주여성이 정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착하는 동안 가족들의 배려와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다. 다문화가족들은 새삼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들은 무엇보다 남편이 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한다.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안정적인 가족부양은 물론 자녀양육에도 동참하기 기대하고 있다.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상하게

가르쳐 주는 배려할 줄 아는 시어머니를 요구하고 있다.

<11> “
.
.”
<22> “ … …”
<15> “
. . .
…
…”
<1> “ .”
<13> “ …
. .”
<16> “ … .
.”
<9( )> “ …
… … …”

5) 다문화교육 패러다임 바꿔야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교육관련 가족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원수가 많은 중국이나 베트남 위주가 되다보니 적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제대로 교육받기가 힘든 상황이다. 소수자 속의 더욱 많은 소수자가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임시적· 형식적·기본적·일방적인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은 무엇보다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너무 멀거나 불편한 교통편 때문에 제대로 접근이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시내의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어떤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정기적으로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거나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크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다.

<18> “ .”
<18( )> “ ○ ○ .

.

.”

<18> “ .”

<8> “ , .

.”

<9( )> “ 1

.

…

… ….

… … …

…”

<18:( )> “

.”

<9> “ . . . .

… …”

<3> “ …”

<1> “ .

. .

. . .”

<11> “ .

.”

<11> “ ,

.”

<10> “ . .

… .”

<16> “ . .

.”

<9( )> “ …”

<19( )> “

…”

6) 일자리 확대 절실

결혼이주여성들의 또 다른 간절한 문제는 ‘일자리‘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역량이나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통역사라든가, 다문화코디네이터, 미용실, 유치원선생님 등을 하고 싶어 한다.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무리가 없는 일자리를 필요로 한다.

농공단지 등에 일자리가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야근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자녀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웃 일손 돕기나 식당 아르바이트는 힘도 들지만 안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적지 않은 경우 여성들이 경제적 빈곤상태인데 남편이 실직상태거나 신용불량자, 혹은 농사거리가 없어 매우 힘든 상황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게 이들의 바램이다.

<3> “
…”
<1> “ . .
.”
<5> “ . . …”
<18> “ ,
,
.
,
.”
<15> “ . ,
, , ,
,
… .”
<2> “ .
.”
<13> “ 7 . …”
<9> “ .”
<10> “ .”
<12> “ . , . …”
<14> “ ,
… , .
.
, .”
<18( )> “ ○ ○ …
…
… …
. …”

<14> “ .
…”

7) 지역사회단체 참여 필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 이외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주체들은 바로 지역사회다. 이웃이나 마을공동체, 사회단체, 회사, 농협 등 사회적 기업, 자원봉사자, 전문가,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등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다소 부족하지만 그나마 농협 다문화대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많은 경험을 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서로를 알게 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친목을 다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는 지역사회의 참여로 이어지며 성공적 정착으로 이끌어 가족 못지않은 중요한 지지가 될 수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면(面) 단위이든 마을(村)단위이든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주여성들을 위한 전용공간이 생긴다면 이같은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 … 5
. … …”
<18( )> “ ○○ ○○ .
…
… ○○
…
,
, …”

농촌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착과정에서 직면했던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기대의 본질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6-6〉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범주화 결과

시간지향성↓ / 공간지향성→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하위범주	범주	주제
	스스로 행복 만듦, 잊어버림, 바른 원칙 / 확 들이받음, 사람만남, 인내력	현실 개척과 수용 / 대응방식 터득	정체성 재정립
	무조건 통해야 함, 말을 배워야 / 내가 먼저 배워야, 한국사람이고 한국에 사니까	말의 중요성 / 한국에 사니까	적극적인 적응
	편견 / 일방적 동화주의 거부감 / 이해해줘야, 좀 양보해야, 똑같은 한국아이/한국문화만 배우라는 것은 억울, 남편들도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 알아야 / 한국도 배워야 / 태국문화 소개	정착장애 / 관용과 포용 / 상호이해 / 상호교육	진정한 다문화 사회구축
	남편노력안함, 싸우지 않고, 때리지 말고, 남편 자녀교육 참여, 남편 책 읽어주고 / 시어머니가 가르쳐줘야 / 속을 모름, 다문화가족 같이 배워야	남편도 변해야 / 다문화가족교육	가족의 배려절실
	중국과 베트남중심, 소수자 배려 없음, 시끄러움 / 임시적, 형식적, 기본적, 일방적 / 너무 멀어, 교통 나쁨, 신랑이 늘 태워다 줘야, 한 번도 못 감, 가까이에서 배워야	열악한 환경 / 교육프로그램 개선 / 접근성 열악	다문화교육 패러다임 바꿔야
	통역사 되고 싶음, 다문화코디네이터, 미용실개업, 자격증코스, 선생님 되고 싶음 / 일하고 싶음, 자녀 양육 후 직장생활 / 일 다님 / 결혼이주여성위한 전용 일자리 / 평일근무일자리 / 일자리 알선 / 다문화가족 남편취업	전문적 일자리 필요 / 맞춤형 일자리 / 남편 취업	일자리 확대 절실
	지역농협의 다문화대학 유용 / 교류공간 필요	단체 참여 / 지역단위 교류	지역사회참여
	교육환경개선 / 주거환경 개선 / 외국인등록증 쉽게 받았으면	환경개선 / 제도개선	기타

제4절 소결

본 연구에서 의도했던 것처럼 '결혼이주여성 정착경험의 본질'과 '결혼이주여성의 기대 본질'로 각각의 진술들을 대분류 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의 지향성을 파악코자 종축으로는 시간적으로 체험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배치하고, 횡축으로는 각자의 경험을 하위범주와 범주로 나눠

공통적인 체험으로부터 속성을 도출해 추상화하며 의미를 확대, 설명력을 높이는 방식을 취했다.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1.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한 개인이 특정사회에 이방인으로 유입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란 쉽지 않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 문화적 충격과 갈등, 절망과 포기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이주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전략,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이주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자신이 본래 태어난 국가의 문화 속에 오래 동안 젖어 있다가 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여성의 경우는 국내에서의 일반적인 이주자들이 겪는 과정과는 많은 질적인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전혀 다른 기후나 풍토,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이 정착하는 과정은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 정착해 가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에서 의미를 갖는 부분은 아주 다양하다. 이들이 겪는 경험가운데 의미를 갖는 단위는 모두 139개로 추출됐고, 이를 범주화해 12개 주제군으로 분류됐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정착 경험의 본질'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12개의 주제군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각 주제군은 '국제결혼', '농촌이해', '문화적 어려움', '기후차이', '고립감, 교류단절', '가족갈등', '자녀문제', '두려움', '외국인으로서의 이중고', '경제적 어려움', '정착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 '희망' 등이다. 즉 이들의 진술 속에서 국제결혼은 이제 특별한 경험은 아닌 것이 분명해졌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게 국제결혼임을 국내로 유입된 다양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이주여성들은 실증해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상화된 국제결혼이지만 이들이 실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어려움과 문제 등은 '첩첩산중'에다 '고립무원'의 상황으로, 결코 만만치 않은 정착과정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표현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다. 자신들의 꿈을 실현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던 농촌이라는 공간은 기대했던 것만큼 풍요로운 공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자신의 꿈'과 '기대'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연속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힘듦'은 경험의 본질 가운데 핵심을 차지한다. 기후나 풍토 차이,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그나마 자신의 적응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심각한 고령화와 공동화로 인한 이웃의 부재와 폐쇄된 환경 등으로 느끼는 고립감과 교류단절, 가부장적 사고에 오랫동안 젖어있는 가족들의 몰이해는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문제다.

결혼생활이 지속되면서 자녀출산과 양육, 교육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체성을 흔든다. 자신으로 인해 자녀들이 고통당하지 않을까 우려해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거나 한국식 이름을 선택하는 노력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간이 경과해도 누그러들지 않는 이질적 타자에 대한 차별과, 일부 가정의 개선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은 결혼이주여성들로 하여금 암담함을 느끼게 한다. 본국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에 대한 지원이 일정정도 필요한 가운데 출산한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결혼이주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기피하는 구조로 작용함을 이들의 진술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결혼이주여성들은 나름대로 한국의 농촌에서 정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을 기울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따뜻한 남편과 딸처럼 살갑게 대하는 시부모, 이웃들의 정, 지역사회의 관심, 이따금 참여하는 이주여성 모임 등으로부터 심리적 안정을 찾으면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도움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꿈을 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와 새로운 각오로 희망을 키워가는 상황이다.

2.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첩첩산중의 어려움과 '하늘만큼 땅만큼' 힘든 정착과정을 거친 결혼이주여성들은 농촌이라는 제한된 공간속에서 스스로 고통을 체화하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변화를 주문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에스닉 그룹으로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에 절실한 의미를 갖는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기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술들은 모두 62개의 의미단위에서 시간적 지향성과 공간적 지향성의 중첩으로 나타나는 범주화 결과를 통해 7가지 주제로 구분됐다. 즉 '정체성 재정립', '적극적인 적응', '진정한 다문화사회 구축', '가족 배려 절실', '다문화교육프로그램 바뀌야', '일자리 확대 절실', '지역사회 참여' 등이다.

정착과정을 거치면서 재구성되는 정체성의 경우 스스로 행복을 만드는 것이라는 현실인식과 함께 차별적 상황에서도 바른 원칙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물론 외부의 부정한 자극에 대해 '확 들이받는' 방식의 공격적 표출도 있지만 인내력을 갖고 상황을 수용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사니까' 우선 한국 생활에 꼭 필요한 언어나 문화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은 여전한 편견과 일방적인 동화주의정책에 대

해 개선을 주장하고, 보다 큰 아량과 양보, 이해로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한국사회의 관용과 포용을 요구할 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상대방국가의 문화를 배우기 위한 상호이해와 교육의 필요성도 주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부장주의에 젖은 남편들이 자녀양육에 적극 동참할 것과 함께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가르쳐주는 자상한 시어머니, 다문화가족 모두가 교육에 참여하며 속내를 이해하고자 하는 가족들 간의 배려가 절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현재 다문화정책을 일선에서 펼치며 다문화사회를 이끌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농촌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즉 중국과 베트남 중심의 운영이나 소수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실태, 연계성 없고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교육프로그램, 일방적이고 기초중심의 적응교육 등은 관심있는 다문화여성들로부터 외면받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열악해 이용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적어도 농촌지역에서는 현재의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내지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통역사나 다문화코디네이터, 미용실개업,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취득 등으로,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기 원한다. 또한 직장생활과 함께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주말이 보장되는 일자리, 결혼이주여성들의 빈곤한 경제적 수준 등을 감안한 일자리 알선과 함께 실업상태인 남편에 대한 취업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길 바라고 있다. 당초 '한국은 잘 산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실제 고립된 농촌생활에다 빈곤까지 중첩돼 절망감으로 이어지지만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나마 타개책이 일자리로 보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농협 등 지역사회 단체들이 운영하는 다문화프로그램에 주목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높고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데다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이주여성들 간의 대면적

관계가 가능해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용이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또 이들은 정기적으로 만나며 수시로 어울릴 수 있는 교류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3. 질적 연구의 한계

면(面) 단위 전체의 결혼이주여성들과 다문화가족들을 심층면접해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대표성의 부분이다. 즉 선정된 사례지역이 과연 우리나라 농촌지역으로서 얼마나 대표성을 갖는가 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농촌의 대표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먼저 구성하고 엄격한 선정절차가 뒤따라야 하지만 이 부분은 본 연구에서 완벽히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다소 편의적인 접근이 있었음을 밝혀둔다. 둘째, 인터뷰 대상자들의 경우 거주기간이 불과 40일부터 18년 정도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면지역 결혼이주여성 전체를 심층 인터뷰하다 보니 당연히 한국말에 능숙하고 한국 정서를 잘 아는 일부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 즉 이들 가운데 일부의 경험과 기대 본질이 곧 지역 전체 이주여성들의 경험과 기대 본질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언제 어디서 연구를 하더라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 요망된다. 셋째, 현상학적 방법론의 절차를 충실하게 따랐더라도 의사소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은 크다. 다양한 출신국가들을 배경으로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입장을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과정에서 상호주관적인 이해를 통해 접근함으로써 도출한 경험과 기대 본질이 과연 이들의 실제 경험과 기대본질로 귀결시킬 수있는가하는 부분이다. 더욱이

인터뷰 과정에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해도 적지 않게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농촌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대부분이 양적연구 위주인데다, 이들의 경험과 기대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한 뒤 현상학에서 중시하는 지향성에 맞춰 이들의 의식세계를 분석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의 입장에서 다문화사회의 모습을 파악코자 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KIHASA

7장

결론

Ⅶ. 결론

제1절 결과요약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의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성공적 정착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을지를 이론적으로 우선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구축을 위해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어떤 변수들이 중요한지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론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다문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공고한 주류사회의 문화적 기반은 변하지 않은 채 동화주의적 관점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우월한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용이나 수용 정도로 인식하다 보니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관점이다. 이는 우리민족의 오랜 순혈주의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지배받다보니 더욱 더 이 같은 인식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은 늘 수밖에 없어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적인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다문화주의의 등장은 어떻게 성숙된 다문화사회를 구현해가야 할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반다문화주의가 강화되는 등 그동안 고수돼 왔던 다문화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등장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현해 갈 것인가에 대해 어느 때보다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기존의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논의에 에스니시티의 관점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에스니시티는 주류사회의 민족이나 국민 등 이데올로기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이나 결혼이주여성 등 에스닉 그룹의 입장에서 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주류사회와 보다 호혜적인 관계를 맺으며 정착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각을 갖도록 한다. 즉 에스니시티 이론은 주류사회의 사회구조와 관계방식 속에서 에스닉 그룹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어떻게 갖고 살아가는가에 무엇보다 관심을 갖는 이론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인정-재분배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주류사회의 구조와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론적 입장을 강화해 가는 것이 앞으로 과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유형화를 통해 이론적으로 에스니시티의 다차원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에스닉 그룹들이 어떻게 주류사회와 상호작용 속에서 스스로를 자리매김 해 갈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가 어떻게 도래했고, 지금까지 어떤 특징을 보이며 이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봤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농촌의 다문화현상은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비대칭성이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차후 당사자 간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갈등 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려면 다문화주의의 주요 담론인 인정과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관용과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지적했다.

다문화사회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사회의 핵심인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들이 근거하고 있는 공간, 즉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는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역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행위 속에서 전개되는 것이다.

이 지역은 가족과 이웃, 다양한 단체와 조직이 신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각자의 생존을 위한 욕구를 해결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기 위해 참여와 협력을 하는 공간이다. 물론 이 지역은 참여와 협력 못지않게 갈등과 배척, 기득권 등이 작용하는 곳이다. 이러한 상반되는 특성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들도 똑같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농촌을 주목하는 것도 바로 지역과 다문화가 밀착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서는 단지 문화적 적응이 아니라 지역적 정착이 중시됨으로써 성공적인 적응에서 성공적인 정착으로 관심을 옮겨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된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족 내에서 획득하기 어려운 인간은 가족 이외의 누군가와 접촉하면서,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하고 확대하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뿌리를 내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민에 의해 다문화사회로 발전한 다른 나라와 달리 결혼이주여성들의 증가로 인해 시작됐다. 더구나 농촌 노총각의 결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결혼이 늘면서 우리나라 다문화사회의 특징이 되고 있다. 이는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하고 가계계승, 돌봄의 필요충족이라는 도구주의적 전략이 숨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그다지 성공적인 것이 아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율은 현재 0.9명에 머물고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결혼으로 다문화 가족 내의 갈등이나 문제점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어쩔 수 없이 정착해 사는 동정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넘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데서 꼭 필요한 존재들임을 분명히 인정하는데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게 본 연구의 논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주의가 현실적인 문제인 저출산·고

령화에 머물지 않고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사회자본의 관점은 도구적이고 가부장적이며 동화주의에 국한된 다문화주의의 인식을 뛰어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사회자본은 콜만이나 부르디외가 말한 배타적 형태의 개인적 자산 뿐 아니라 푸트남이 지적한 공동의 자산으로서 협력과 협동을 촉진하는 네트워크나 규범, 신뢰 등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적 차원에서는 우리의 전통인 효를 존속시킬 뿐 아니라 공존·관용 등 새로운 형태의 규범과 신뢰를 창출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높이고 네트워크의 범주를 지역차원에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확장성을 갖고 있다.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다문화사회를 접근한다는 사실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될 때 가능한 것으로, 서로의 관계성을 높이면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둠으로써 실현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정부가 중심이 되는 위로부터의 다문화사회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다문화사회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한층 견고하게 다문화사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때 반다문화주의가 예상 밖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도 안전판을 확보하는 길이며, 앞으로 크게 늘 수 있는 복지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모델링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는 판단에 따라 본 연구 분석틀을 〔그림 3-6〕과 같이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관점에 기초해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모델을 〔그림 3-6〕과 같이 구성한 뒤 이에 기초해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의 원자료를 재분석해 그 가능성을 실증했다.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는 국내의 전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13만3,000여명 가운데 7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조사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분석할 경우 어떤 통계적 접

근보다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모델의 적합성을 다양하게 검토해 봤다. 통계분석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춰 읍·면단위 이하의 농촌에 해당하는 사례 2만2,788명으로 국한해 진행했다.

모형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몇 가지 관심사에 대한 분석을 했다. 먼저 향후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될 수 있는 국적·연령·거주기간·학력·한국어능력·취업여부·생활수준 등의 영향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그 결과 학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자녀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경우 로지스틱 분석결과에서도 학력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자녀출산에 있어 결혼 후 거주기간(1.157배)과 한국어 능력(1.276배)이 현재 자녀수 유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도 학력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이 높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타났다.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위한 모형의 적합성은 3단계로 나눠 진행했다. 즉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는 1단계, 삶의 만족도가 현재자녀수와 사회참여 의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2단계,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3단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델적합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애당초 본 연구에 활용된 원자료가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구성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모델구성에 사용됐던 변수 대부분의 상관성은 높은 데다 통계적 유의성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향후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표를 새롭게 작성할 때 모델링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형1에서 결혼 이주여성들은 결혼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관계·사회관계·정부지원 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크게 늘어났고, 취업도 부적으로 영향을 줬다. 학력의 경우 가족관계에서는 그

다지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지만 사회관계나 정부지원 등을 받는 데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어능력은 가족 간의 관계증진에는 기여했으나 사회관계나 정부지원을 받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종합하면 삶의 만족도,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에는 무엇보다 가족관계의 영향력이 컸고, 이어 사회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은 이 두 가지 변수보다 영향력이 크게 낮아 앞으로 만족도를 높여 성공적인 정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어떻게 강화하며, 사회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최대한 정책적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2를 통해서는 삶의 만족도, 성공적인 정착에는 결혼기간과 학력, 취업 등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친데 반해 한국어능력과 생활수준은 정적으로 영향을 줬다. 무엇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게 기대 자녀수에는 오히려 부적 영향력이 큰데 반해 사회참여의지를 강화시키는 데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모형3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독립변수인 '취업'를 조정해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됐다. 그 결과 〔그림 5-3〕 모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 자녀수(-0.082)에 부적으로, 사회참여 의지(0.060)에는 정적으로 미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사회관계는 기대자녀수(0.048)와 사회참여의지(0.103)에 각각 정적으로 영향을 줬다. 정부지원은 현재자녀수(-0.213)에는 부적으로, 사회참여의지(0.234)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줬다. 〔그림 5-4〕 모형에서는 '취업' 변수를 삭제한 결과 〔그림 5-3〕의 모형이 다소 확연히 드러나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통계적 접근은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가족관계·사회관계·정부지원이 모두 만족도 제고와 성공적인 정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무엇보다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고 이어 사회관계의 강화 필요성도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같은 통계적 접근, 양적 접근을 통한 모델링 작업은 결국 현재 자녀수 증가보다 사회참여 의지를 높여 결국은 사회자본 강화에 훨씬 기여할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했을 뿐 아니라 향후 다문화사회를 구현해가는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실증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처한 현실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고자 이들이 농촌지역에서 겪는 여러 가지 체험과 어려움이 무엇이고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 어떤 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는가를 보다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대상지역은 사과주산지로 알려진 ○○도 ○○시 ○○면 일대의 결혼이주여성 전수인 22명과 일부 가족들이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는 2011년 5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결과분석에는 현상학적 방법론을 적용했다. 현상학적 방법론은 후설의 현상학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일상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의식을 탐구함으로써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구성원들의 사고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다.

현상학적 방법론은 판단중지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연구자가 가질 수 있는 편견·고정관념·상식 등을 배제하고서 상호주관성에 기초해 연구참여자의 의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더욱이 철저한 연구윤리 적용과 자기고찰에 기반해 사실적가치·적용성·일관성·중립성을 갖고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의식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분석결과에 대해 현상학의 핵심인 지향성을 시간지향성과 공간지향성으로 나눠 본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했다. 그 결과 본질은 경험적 차원과 이들이 경험을 통해 갖는 기대로 내용은 크게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경험적 차원의 본질은 다시 12가지 주제로 구분됐다. 즉 '국제결혼', '농촌이해', '문화적 어려움', '기후차이', '고립감, 교류단절', '가족갈

등', '자녀문제', '두려움', '외국인으로서의 이중고', '경제적 어려움', '정착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 '희망'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풀어보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국제결혼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됐다. 가족·친구·친척소개, 종교, 결혼회사 등 경로는 다양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우리나라의 농촌이 생각만큼 '코리안 드림'을 느낄 만한 공간은 결코 아님도 알게 된다. 정착과정은 첩첩산중 어려움의 연속으로 나타났다. 당연시 할 수 있는 기후차이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은 그야말로 얘기할 바도 아니다. 남편이나 시부모와의 의식차이에 따른 가족갈등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 사람과의 관계단절에 따른 고립감, 계속되는 자녀양육 과정에서의 어려움, 외국인으로서 받게 되는 차별에다 경제적 빈곤은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통계청이 발표한 결혼이주여성 관련 통계에서 이혼율과 그 사유가 잘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주여성들은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을 받으며 힘겹게 순간순간들을 헤쳐가고 새로운 희망도 갖게 됨을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정착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에 대한 기대도 확실히 밝히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기대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대본질은 '정체성 재정립', '적극적인 적응', '진정한 다문화사회 구축', '가족배려절실', '다문화교육 패러다임 바꿔야',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단체 참여필요' 등 7가지 주제로 나타났다. 즉 바른 원칙과 인내심, 때로는 강하게 들이대는 식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만큼 최소한 한국말을 구사하거나 문화적 적응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하지만, 이들은 일방적인 동화를 강요하는 태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질적 타자가 아니라 그들도 한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

로 살 수 있도록 관용과 이해를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주의 관점에서 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자신의 모국 문화를 한국사회에 소개하고 싶은 강한 욕구도 갖고 있다. 특히 남편과 가족이 정착에 가장 중요한 만큼 이들의 협조를 요청한다. 폭력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되고 정서적 지지와 함께 안정적 가족부양, 자녀양육 동참을 남편에게 당부하고 있다. 또한 잔소리하거나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딸처럼 자상한 시부모가 돼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경우 소수자 배려가 안 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임시적·형식적·기본적·일방적이라는데 불만이 있었다. 더구나 다문화교육의 중추역할을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농촌에서는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데다 이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적합성이 떨어져 차제에 다문화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확대는 농촌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 때문에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다. 이들은 자신들의 적성이나 장점 등을 살려 보다 전문적인 일을 하길 원한다. 주말 휴일이 보장 되거나 야근 작업을 하지 않아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필요로 했다. 남편의 경우 실직 등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접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문화가족 남편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요청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가족 이외에도 많은 이들로부터 지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웃이나 마을공동체, 사회단체, 회사, 농협 등 사회적 기업, 자원봉사자, 전문가,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등을 통해 가족으로 국한된 고립된 세계로부터 벗어나 보다 넓게 사회를 체험하길 원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는 물론 결혼이주여성들 간의 정기적 교류가 가능하려면 접근성이 있는 읍·면 단위에 별도 교류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양적연구에서 발견된 특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질적 연구에서 분석된 다문화가족의 경험본질과 기대본질을 종합하면 이것이 결국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

축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에 다시 한 번 귀를 기울여봐야 한다.

제2절 제언

1. 지역사회 참여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구축

본 연구는 기존에 정부나 지자체 중심의 지원을 통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문제해결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웃·마을·학교·사회단체·사회적 기업·다문화가족네트워크·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강조코자 했다. 이것은 곧 아래로부터 위로 다문화사회를 자발적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저비용으로 지속적인 다문화사회 구축방안이 된다.

2. 결혼이주여성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사회자본 재구축

본 연구는 지역사회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을 위한 방안모색이 연구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의 유용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사회자본이란 마을이나 공동체, 지역사회 차원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이를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단순히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이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유지·발전되려

면 현재 계속 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역량이 일정 정도로 지역사회에 투입됨으로써 이들에 의해 사회자본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확산이 중요하다.

3. 농촌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문제 선결

정부는 이민청 혹은 인구청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직면한 농촌의 다문화가족 문제만이라도 먼저 해결하면서 향후 대두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접근 방법이 요망된다. 현재 농촌의 다문화가족에 국한해서 보면 상당수가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정책으로부터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으로부터도 소외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책을 수립, 지역사회가 중심이 돼 농촌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다.

4. 농촌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정착교육 필요

각 시·군 단위에서 설립돼 운영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농촌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접근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거주하는 농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10~20㎞ 혹은 20㎞이상 떨어져 있다 보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방문교육도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등으로 연속되지 않아 여러 가지 조건상 제약점이 많아 활용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에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정착교육이 필요하다.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을 중심으로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5. 결혼이주여성 도우미, 자원봉사자, 전문가의 네트워크 구축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소통하고 언제든지 가족갈등이나 사회적 차별, 경제적 문제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지근거리에서 상시접촉이 가능한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요구하는 별도의 공간을 거점지역에 설치, 이를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이들을 위한 도우미나 자원봉사들이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는 각 읍·면별로 보면 10여명에서 100여명까지 규모가 다양한데, 각 면 단위에 1곳씩 '다문화사랑방' '다문화카페'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6. 상호주의적 입장에서의 다문화교육으로 이해 제고

현재 다문화교육은 기본적으로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정착을 위한 언어교육과 음식 만들기, 전통습관 익히기 등으로 국한돼 있다. 물론 자녀양육이나 스트레스 해소법, 국적취득, 일자리 제공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이는 일방적인 동화주의를 주지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쌍방향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에스니시티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바라보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에스닉 그룹으로서 이들과 함께하는 배우자나 시부모, 가족, 마을주민 등의 상호교육이 절실하다.

7.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과 보살핌에 대한 재인식

우리사회는 가부장제의 전통에 입각해 여전히 결혼이주여성들을 바라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을 통해 아이를 낳아 대를 잇고 부모수발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도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도 강하다. 이로 인해 나이가 어린 여성과 특정국가 출신이 계속 선호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결혼 남성들에게 올바른 결혼관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과 인식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해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성공적 정착에는 가족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 연구의 제Ⅴ장에서 명확히 검증된 만큼 배우자나 시부모 등 가족들에게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8.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간의 네트워크 구축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언어상의 문제, 한국문화에 대한 이질감, 경제적 문제, 또래집단 부재, 자녀양육, 농사 혹은 직업적 조건, 개인적 문제 등으로 고립돼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으로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전히 존재감을 찾을 수 없고 이주여성들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진척이 안 되는 실정이다. 이들을 연결하는 다양한 계기를 만들어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는 것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9. 상시 통합프로그램 가동해야

결혼이주여성들 간에는 같은 민족이나 같은 언어권, 같은 국가출신이 아니면 소통이나 접촉이 안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주여성들을 최대한 묶어줄 수 있는 공통의 프로그램이 없다. 더욱이 결혼이주여성들의 배경이 다양한 점에 착안하고 학력·경제·나이·출신국·종교 등에 따라 수준차이가 크다 보니 이들을 묶어주는 공통적 매개체 없이는 상호간의 네트워크 구축도 한계가 있고 불안정성도 증대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벤트 차원이 아니라 보다 정교하고 상시적으로 가동되는 통합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10.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농촌지역에 정착함에 있어 일정정도의 경제적 수준을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고 본국의 부모나 형제자매들을 지원하면서 농촌에서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일자리는 현실적인 문제다.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주말에 휴일이 보장되는 일자리 등을 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자리 제공에 앞서 일자리의 특성과 기본적인 규칙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일자리에 계속 머물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참고문헌

강진숙·장지호·최종민, 「2008 촛불집회 참여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3(4): 7~48, 2009.

곽병선·김희숙,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방안 고찰-전북 군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제8권 제2호, pp. 1~22, 2009.

김경희·엄한진·윤태일, 「신문활용교육(NIE)을 통한 다문화 사회교육의 가능성과 조건-강원지역 결혼이주여성 교육사례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12호, pp. 5~276, 2009.

김기홍, 『재한화교의 Ethnicity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1995.

_____, 『한국농촌마을 사회자본의 특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2006.

_____, 「농촌마을 사회자본 탐구를 위한 이론의 구성」, 『농촌사회』 제16집 1호, pp. 7~42, 2006.

김도희·신효선,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농촌사회』 제 19집 2호, pp. 243~273, 2009.

김동윤, 「사회자본의 개념화에 대한 탐색적 접근: 정치숙의 및 시민적 자질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9권 4호, pp. 38~64, 2009.

김성권, 「사회자본과 지속가능한 발전」, 『경상논총』, 제30집, pp. 153~176, 2004.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이혜경·설동훈·정기선·심인선,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 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김승환,「다문화담론과 로컬리티의 이원성」, 『로컬리티 인문학』 3, pp. 75~105, 2010.
김영옥,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 2호, PP. 129~159.', 2007.
_____, "인정투쟁 공간/장소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아이다'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14: 31-64, 2010.
김응렬, 『사회조사방법론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2001.
김이선·황정미·이진영,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Ⅰ):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김정훈,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자본과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0.
김진숙·이혁무·이근무,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적용 연구-근거이론 방법론 접근」, 『한국가족복지학』, Vol. 30, pp. 135~166, 2010.
김철환, 『즐거운 경제학』, 글을읽다, 2008.
김진희·박옥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18(1): 191-232, 2008.
김현경·신동주,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 결혼생활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9권, 제4호, pp. 519~535, 2008.
김현미, "국제결혼의 전지구적 젠더정치학: 한국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70: 10-37, 2006.
김현미·김민정·김정선, 「안전한 결혼이주: 몽골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과 경험」, 『한국여성학』, 제24권, 제1호, pp. 122~155, 2008.
김현숙, 「결혼이주여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Vol. 62, No. 2, pp. 135~159, 2010.
김혜순,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 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42(2): 127-144, 2008.
문경희, 「호주 다문화주의의 정치적 동학: 민족정체성 형성과 인종·문화갈등」, 『국제정치론총』, 제48집 제1호, pp. 267~292, 2008.
박대식·최은경,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박영기·박정은, 「다문화사회와 새마을운동: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3권 1호, pp. 65~99, 2010.
박재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지역 정착과 지원방안」, 『2005년도 한국 사회학 전기 사회학대회』, pp. 123~128, 2005.
_____, 「경기도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가족생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효과 분석」, 『2009년도 한국 사회학 전기 사회학대회』, pp. 137~154, 2009.
_____,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및 남편의 가족생활 적응연구: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제26집, pp. 137~163. 2009.
박정숙·박옥임·김진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6호, pp. 59~70, 2007.
박종일, 「다문화시대의 정체성 연구를 위한 '에스니시티(Ethnicity)'의 개념화-민족, 인종, 종족, 그리고 소수민족과 연결하여-」, 『전국한국사회학대회논문요약집 2006년12월』, pp. 283~285, 2006.
박지영,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관계와 관련변인」, 『농촌지도와 개발』, 제17권, 2호, pp. 305~326, 2010.
서보건, 「다문화가족통합을 위한 법제 연구-한일비교」,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pp. 76~105, 2010.
설광석, 『부산지역 화교의 사회연결망 변화와 사회자본화』, 동아대학교대

학원, 2009.
성향숙, 「결혼이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6집 4호, pp. 25~43, 2010.
송재룡,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학, 그리고 그 넘어: 찰스 테일러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봄/여름호, pp. 79~106, 2009.
심우찬, 『사회복지실천평가론 강의노트, 일반대학원』, 대전대학교, 2009.
양순미,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행복에 관련변인이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17(2): 5-39, 2007.
_____,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사회참여활동 태도가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20(1): 233-263, 2010.
양순미·최규홍·강경하, "결혼이주여성의 농촌사회 참여활동 실태 및 이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화: 농업·지역사회·취업활동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6(4):713-742, 2009.
양애경·이선주·최훈석·김선화·정혁,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양점도·김춘택, 「농촌 외국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2006, Vol. 16, No. 1, pp. 1~20, 2006.
엄한진, 『다문화사회론』, 소화, 2011.
여종현, 『현상학적 심리학과 제일철학. 한국철학회. Vol. 49, pp. 18~217, 1996.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 2007.
원승룡, 『현상학적 방법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회, Vol. 32, pp. 395~426, 1992.
위선주, 「아시아 결혼이주체제에서의 출신국 정책 연구-필리핀, 베트남을 중심으로」, 『여성이론』, pp. 130~160, 2009.
유현숙·곽현근·배지연, 「여성의 동네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제22권, 2호, pp. 315~337, 2006.

윤명숙·이해경, "농촌지역 시어머니의 외국인 며느리 봄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농촌사회』, 20(2): 191-232, 2010.
윤인진,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 pp. 72~103, 2008.
이근무·김진숙, 「국제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7인의 새로운 디아스포라(neo-diaspora) 이야기」, 『한국사회복지학』, Vol. 61, No. 1, pp. 135~162, 2009.
이남인,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철학과 현상학연구』 제24집, 2005.
_____, 「현상학적 사회학」, 『철학과 현상학연구』, 제25집, pp. 5~39, 2006.
이삼식·박종서·김필숙·김형석,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출산행태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이안지영, 「영주권을 선택한 결혼이주여성의 '협상하는 시민권'」, 『여성이론』, pp. 28~52, 2009.
이용재, 「다문화정책에서의 새로운 배제: 제3세계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에 대한 배제의 모습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제3권, 제1호, pp. 131~173, 2010.
이종구·임선일, 「재한 중국동포의 에스니시티(ethnicity) 변용에 관한 연구-서울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16권 제1호, pp 343~375, 2010.
이종렬·범령령, 「한국 다문화 관련 행정서비스의 대응성에 관한 연구-중국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1권, 제3호, pp. 225~247, 2010.
이주연·김성일, 「국제결혼이주여성가족의 지역사회와의 갈등양상 및 통합방향」, 『전국 한국사회학대회 논문요약집 2006년 12월』, pp. 241~243, 2006.
이창식,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Vol. 17권, 제4호, pp. 717~742, 2010.

이태주·권숙인·Julia Martinez·Yamamoto Kaori,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갈등양상과 극복과정: 호주와 일본의 사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이형하, 『농촌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연구』, 이담, 2010.

임석회,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실태와 적응 변인분석」, 『대한지리학회 2009년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23~26, 2009.

임선일, 「에스니시티(ethnicity)의 변형을 통한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의 문화변용형 연구」, 『산업노동연구』, 제16권 제2호, pp. 381~422, 2010.

임형백. 「한국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다문화사회의 차이와 정책 차별화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1권 제1호, pp. 51~74, 2009.

임형백·이성우·강동우·김미영, "한국농촌의 다문화사회의 특징", 『농촌지도와 개발』 16(4):743-773, 2009.

정광호·최슬기·장윤희,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과정 분석-위탁과 바우처방식 비교」,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제4호, pp. 231~255, 2009.

장경호, 『사회복지현장실습지도자의 수퍼비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대전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정상기·정윤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7권, 제2호, pp. 229~255, 2010.

조용환, 『질적 연구·방법과 사례』, 서울:교육과학사, 1999.

조흥식 외, 『질적연구방법론』, 학지사, 2005.

최병두, 「일본 '다문화공생' 정책과 지역사회의 지원활동」, 『국토지리학회지』, 제44권 제2호, pp. 143~165, 2010.

_____, 「일본의 다문화사회로의 사회공간적 전환과정과 다문화공생 정책의 한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7권 제1호, pp. 17~39, 2011.

_____, 「다문화사회와 지구·지방적 시민성: 일본의 다문화공생 개념과 관련하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7권 제2호, pp. 181~203, 2011.

_____, 『다문화공생-일본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지역사회의 역할』, 푸른길, 2011.

최병두·임석회·안영진·박배균, 『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푸른길, 2011.

최신일, 「질적연구의 철학적 배경」, 『대구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Vol. 17, No. 2, pp. 263~275, 2001.

최원기, 「현상학적·비이분법적 방법론과 다차원적 분석방법에 대한 일 연구」, 『한국사회학』 제33집 여름호, pp. 245~274, 1998.

최정혜, 「다문화가족 연구 동향분석 : 2005~2010년 발간된 국내논문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제22집, pp. 79~97, 2010.

최종렬, 「탈영토화된 공간에서의 문화주의」, 『사회이론』, 봄/여름호, pp. 48~78, 2009.

_____, 「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정책」, 『사회이론』, 봄/여름호, pp. 229~286, 2010.

최종혁, 『질적연구방법론(현상학적 자기평가론)』, 양서원, 2009.

최종혁·안태숙·이은희, 「지역사회 사회자본 척도개발을 위한 질적여구-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Vol. 62, No. 4, pp. 297~324, 2010.

최현덕,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사이의 갈등에 전제되어 있는 문화개념에 관하여-여성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사회와 철학』, 제20호, pp. 259~284, 2010.

최혜지,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학』, Vol. 61, No. 1, pp. 163~194, 2009.

표명환, 「재한결혼이주여성의 국가적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pp. 97~120, 2009.

홍기원, 「한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3권, 제3호, pp. 169~189, 2009.

홍석우, 「다문화 상담이론에서의 방법론적 토대로서 현상학」, 『철학』, 제 105집, pp. 143~168, 2010.

홍성하, "다문화 상담이론에서의 방법론적 토대로서 현상학", 『철학』105: 143~168, 2010.

홍지아, 「젠더시작에서 바라본 한국 언론의 다문화 담론: 경향·동아·조선·한겨레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pp. 644~678, 2010.

황정미·김이선·이명진·최현·이동주,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홍현미라, 「지역사회관계망을 활용한 자원개발경험의 유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사회자본(social capital) 관점적용」, 『한국사회복지학』, Vol. 58, No. 4, pp. 65~92, 2006.

Barth, F., *Ethnic Group and Boundaries*, Boston: Little, Brown, 1969.

Berry, J. W., "Socio-Psychological Costs and Benefits of Multicurturalism : A View from Canada", Governance and Cultural Diversity. Ed. J. W. Dacyl and C. Westin. Stockholm: UNESCO and CIEFO, Stockholm University. 29, 7~354. 2000.

Bourdieu, Pierre, La Distinction. Minuit(최종철 옮김, 2005,『구별짓기-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1979.

_____, "The Forms of Capital", pp.241~258,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G Richards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83/1986.

Coleman, Jame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July), 1988.

_____,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Enzo Paci, *Diario Fenomenologico*,(이찬웅 옮김, 2000, 『어느 현상학자의 일기』, 이후), 1973.

Fukuyama, F., *Trust: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Free Press, New York(구승회 옮김, 1996, 『트러스트』, 한국경제신문사), 1995.

Gibson, M. A., Immigrant Adaptation and Patterns of Acculturation, *Human Development*, 44, 2001.

Granovetter, M.,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360~1380, 1973.

_____,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1985.

Kymlicka, W.,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Clarendon Press(황민혁·송경호 역, 2010, 『다문화주의 시민권』, 동명사), 2006.

Mason, J., *Qualitative Researching*, Sage Publications(김두섭, 1999, 『질적 연구방법론』, 나남), 1996.

Portes, A. & Bach, R. L., Bach, *Latin Journ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5.

Putnam, R.,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Priceton University Press(안청시 외 역, 2000,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1993.

_____,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Vol.6, 1995.

Schütz. A., *Collected Papers I,* Martinus Nijhoff, The Hague,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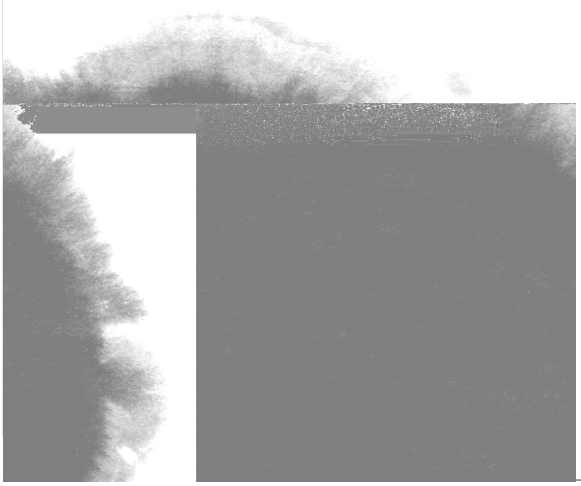
Taylor, C., *The Ethics of Authenticity*, Cambridge:Harvard Univrsity Press, 1992.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奥田道大 編著, 『都市エスニシテイのかの社會學 : 民族/社會共生の意味を問う』, ミネルヴア書店, 1997.
王甫昌, 『當代臺灣社會的族群想像(Ethnic Imagination in Contemporary Taiwan), 時報文化公司』(지은주 역, 2008, 『갈등의 정체성-현대 대만사회의 에스닉 상상』, 나남), 2003.
井上俊, 『時間と空間の社會學』, 岩波書店, 2000.
竹田青嗣, 『現象學入門』, 日本放送出版協會, 1990.
樋口明彦, "現代社會における社會的排除のメカニズム", 『社會學評論』, Vol.55(1), 2003.

<농민신문> 2011년3월18일자 15면.
<동아일보> 2011년2월8일자 A4면.
<매일경제> 2011년7월27일자 A13면.

부 록



부록

부록1. 질적 연구 원 자료 2차 분석 결과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11: 국제결혼이 아니라…거창한 생각은 아니예요. 한국이래도 같은 민족 이니까…	거창한 건 아님	쉬워짐	국제결혼
10:이모 소개로…여기 한국 남자 사랑스럽고, 뭐 잘 해주고 뭐 그래서 여기 결혼 했어요…	친척 친구 남편 친구소개 얼떨결에 결혼회사 여행 종교	다양한 경로	
14: 베트남 사람이랑 같이 살고, 안 좋아 하니까 외국사람 만나고 싶어서…			
17: 뭐 소개로 얼떨결에 만나가지고 얼떨결에 했어요.			
1: 큰 이모 소개로 결혼…			
3: 친구 소개로…			
4: 아…친구소개… 따뜻한 사람…			
5: 소개로…따뜻한 사람… 이거 뭐야… 한국남자 어떤 남자…좋아요			
11: 그냥 누구 말대로 얼떨결에 그냥 해서 온 거 거든요. 소개로…			
9: 남편 친구소개로			
12: 남편 후배 소개로…그 사람 이 또 베트남 색시하고 결혼해서 살아요.			
22: 사촌동생 소개로			
2: 결혼회사 통해서 많이 하니까…			
13: 베트남 여행을 통해서			
15:통일교 …한국은 하는, 저기 하는, 하느님 땅			
14: 잘 살아요. 조금 잘 사는데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음 농사는 어려움	농촌의 어려움	농촌 이해
19(시어머니): 암말 잘 살아도 안와요 안와. 시골엔			
11: 조금 어려웠죠…농사짓고 이러는 게 저기했죠.			
1: 처음엔 너무 매워 힘들었어요… 고추장 같은 거…너무 입이 얼얼하고…안괜찮아요…그리고 고기 많이, 밀가루 같은거 많이 먹었는데 여기는 야채 같은거 많이 먹어서 너무 안맞았어요……	매워 얼얼함 냄새남 만들 줄 모름	음식으로 인한 어려움	문화
14: 네. 처음에는 조금 먹었기 힘들었는데, 2년간 베트남 음식 먹었어요			
16: 필리핀 사람 매운 거 못 먹어요. 전혀 없어요.			
15; 한국말, 한국 음식 때문에 가장 어려워요….			
15: 처음에 한국 왔을 때 김치 냄새나서 못 먹어요.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5: 요리… 할줄몰라요			화적어려움
7: 한국 음식 같은거 못하고,			
4: 언어 조금 어려워요	어려움 겁남 말 안통해요 머리 아픔 답답함 쓰기 어려움 뜻 모름	언어적 어려움	
5: 한국말 어려워요			
7: 어려운, 제일 어려운 게 말 안 통한거.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거. 경제적 힘든 거 보다 더 제일 어려운게 말 안통하는 거, 한국 말 배우는 게 제일 급하더라구요			
9: 한국말 너무 어려워요…. 너무 너무 힘들어요…. 머리 많이 아파요….힘들어요… 어려워요….			
9: 한국말 빨리 배우고 싶은데… 답답하고 속상해요….한국말 어려워요… 답답해요…바빠요…. 많이 바빠요……한국말 못하면 한국생활 못해요…답답해요……한국말 어려워요….너무 심심해요…너무 너무 답답해요…			
3: 힘들었어요…땅이…하늘만큼 땅만큼 많이요….음식도 못 먹고 한국말도 안통하고….			
15: 한국말은 처음에서부터…쓰기가 어려워요…tv보며 독학			
14: 한국말이 제일 어려웠구요.			
16: 한국말과 한글 쓰는 거요…읽고 써야만 이해가 되니까요…인터넷이나 다른 정보들 몰라요…많이 못 들었어요….글씨 알아도 뜻을 몰라요…뜻 어려워요….			
4: 한국 왔을 때 남편이 잘 해줬어도 한국말 어려워요….			
1: 어려운 것은 많지요…시어머님, 시아버님 같이 사니까 내 뜻대로 잘 할 수 없어서…나갈 때도 이야기해야 되고 같이 안 먹고 먼저 밥 드셔야 하고 나는 나중에 먹고…한국은 시어머니 잘 들어야 한다고….	인사법 다름 식사예절 모름 지저분함 항상 먹을 것 대접하고 항상 양말신고	생활 방식 차이	려움
3: 베트남도 하지만 하는 방법이 달라요….인사하는 것도 달라요…베트남은 별로 안 친하면 인사 안하는데 한국은 항상 인사해요…다른 것이 많아서 처음에 힘들었어요….			
15: 저는 지저분해서 싫어요… 한국에 와서 힘들었어요…. 함께 꼭 먹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음식도 안 맞아서 밥도 안 먹고 그랬어요….젓가락 넣어서, 여러 사람이 젓가락 넣어서 먹잖아요.			
1; 한국에 손님 오면 항상 먹는 것 줘요…필리핀 조금 그러고 안줘도 돼요…친하지 않으면 그리고 양말 항상 신고…필리핀은 안 신어요…한국사람 많이 오시면 부끄러워요…			
15: 겨울 때, 추울 때는 진짜…	너무 추움	추운 겨울	기후 차이
16: 말하기. 온도 조금… 겨울 같은 거…			
17: 이렇게 좀 사람이 주눅드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구요 괜히 사람 만나면 내가 아오… 내가 중국사람이니깐 …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깐 그런건 좀 있더라구요.	주눅 듬 무관심 바쁜 일상	소극적 인식	고립
11: 결혼이주여성분들하고는 잘 안만나고 있어요. 왔다는 소리, 누구네 집에 어떻게 왔다라는 건 아는데, 잘… 안 들여다 봐서…			
17: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저는 직장생활 그런 게 없어가지고 교류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도 안 해요…그런데 관심 없고 아기 아빠도 싫어하고…내가 관심 없어요…			
12: 한국인 친구 없어요…사람이 없어요…하지만 아기 있으	젊은 사람 없음	사람이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니까 친구 조금 있어도 돼요…친구는 나중에 애기 커서 그 때 만나도 괜찮아요. 아기가 좋아요…	친구 없음 노인만 있음	없음	감
16: 친구 없어요.			
18: 옆집 할머니 밖에…			
19(시어머니): 여기만 해도 노인네들이라 상대할 사람이없어			
1: 난 젊은 한국여자들과 친구하고 싶은데 주변에 없어요…. 답답하고 그래요….심심하고….			
9: 너무 심심해요…너무 너무 답답해요…			
1: 한국 설날 조금 외로워요…아기도 있고 남편 있으니까 괜찮아요…설날에 한국은 친구 없어요…안와요…	마음을 터놓지 못함 사람이 없음 흉이 됨	믿지 못함	
17: 교류…안 해요….회사에서 언니들 있는데… 나름 떠들지 가정적인 말은 안 해요….그것이 돌고 돌고 또 내 귀에 들어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11: 아무리 얘기 많이 해도 고향에 있는 친구처럼 마음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거리가 있는 것			
17: 그냥 사람들이 저를 그래나요(?) 지금 사람들이 속마음을 터놓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내가 속마음을 터놓고 말하면 흉이 되요.			
1: 친정 도와주고 싶어요…아버지 병원에 있는데 돈을 많이 주고 싶은데 속상해요…	친청 도와 주고 싶음 친정가족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향수	갈수 없음	
9: 네. 엄마 많이 보고싶어요. 엄마 아빠 아파서 용돈 드리고 싶어요… 못해요….속상하고 아파요….			
1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집 생각 나서 울었어요….보고 싶어도 참았어요.			
1: 아버지 엄마 보고 싶으면 전화카드 해요…			
13: 베트남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전 화 해요…엄마 울어요…내 마음 아파요…엄마, 아빠 나 괜찮아요 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3: 너무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계시니까…. 그런데 저는 갈 수 없어요.			
15: 처음에 마악 화가 많이 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당신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지 그랬어요…	남편의 무시 무관심 부부싸움 소리지름	남편과의 갈등	가족 갈등
15: 많이 화내면서 당신이 우리아기들 무시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 보고 무시한다고 싸워요….			
15: 무관심해서 속상했는데			
15: 남편이 성질이 나빠… 화나면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러지만… 친정 좀 도와주자고 하면 남편이 막 화내요….			
15:아이 아빠가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소리를 질러요….속상해요…			
15: 한국말도 중요하고 한국 음식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믿지 않고 자꾸 의심해요. 시어머니도 안 믿고 가족도 안 믿어주고 가장 많이 가슴아파요. 무시하는 것 싫어요. 자꾸 쳐다보고…	시어머니의 의심 고부갈등 참견 말 안함	고부갈등	
11: 밖에서 보다도 집 안요, 가족 여기가 더 저기한 것 같아요, 보니까.			
17: 시댁의 시자도 싫어요…			
배: 고부갈등도 많은 거 같고,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배: 며느리를 내 자식마냥 감싸주고 해야되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15: 네. 제 집에, 엄마한테 전화하면 이쪽도 흔나고…. 이런… 뭐 돈도 많이 들어 가는 거 저도 몰랐어요. 그 때 처음에는…			
17: 시부모님에 대해서 처음 만나보니깐… 살다보니깐 부데끼는 일이 많더라구요. 당연히 짜증나고… 시어머니께도 짜증나고…			
17: 크게 시어머니랑 나랑 말하면 화나고 짜증나니깐 좋은 소리 안하니. 전 아예 말을 안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살 때 작년 여름부턴가? 말도 하고 싶지 않더라구요 아예 말도 안하고 관심도 없었어요.			
17: 같이 살면서 이야기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싫더라고요….아예 이야기 안 했어요…내가 말 하면 좋은 소리 안 나가니까 오히려 싸우느니 말 안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말 안통함 기분 상함		
9: 엄마는 맛 없다고 나 안 먹어 하면서 말도 안 하고 방에 그냥 들어가고…말 안 해…나도 말 안해…기분 많이 상해…나빠…난 물 많아서 맛 없어요…엄마는 울어요.			
9: 시엄마는 놔둬…놔둬…해요…기분 나빠…			
9: 엄마는 베트남 사람 오면 싫어해…뭐야 뭐야….식당에 가는 5년 된 베트남 친구가 집에 설거지 안 하고 식당 간다고 싫어해….엄마가 왜 상관해?? 기분 나빠….엄마가 그런 걱정을 왜 하느냐…너무 몰라요… 다른 사람들 밖에서 늦게 와도 이야기 안 하는데 시엄마는 계속 뭐라고 해요…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어디가?? 또 어디가??? 젊은 사람 나갈 수 있는데 화내요…신랑은 괜 찮아요…			
14: 낳고 싶은데요. 지금은 한달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서…			
17: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또 애가 혼자면 외롭고 하니까. 근데 우리상황에서는 꿈도 안꿔요.			
14: 신랑이 돈을 많이 못 벌으니까, ,저도 직장 없으니까 애기 키우는 거 때문에,	출산 못함		
17: 과외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아직… 과외를 그 학원같은 걸 보내주면 좋은데 지금 아오… 좀 살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면‥(좋은데) 여건이 안되고 **말으면 또 큰 일날까봐… 이것도 죽도 밥도 안되니깐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학원 못 보냄 학습지도 못함	저출산	자
17: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 주고 싶은데…제가 시간 날 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만 있지 잘 안돼요…시간이 문제이고 몸이 따라 가야 하는데 잘 안돼요.			녀
1: 그런데 걱정이 돼요… 한국 초등학생들이 보통이 아닌데 외국아이들이라고 놀리고 괴롭힐까봐… 그래서 똑똑하게 키우려고요…	놀릴까 걱정		문
1: 아빠도 나이 많아서, 나는 조금 걱정이예요. 잘 모르니까 커서 엄마한테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마음이 아플까봐…	외국인 죄책감		제
1: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서 애들 학교에 가면 안 좋잖아요. 또, 학교에서 또 우리 애 한테…걱정되요	자녀위해 국적취득	자녀	
1: 엄마가 외국사람 이라서 애들 학교에 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성을 한국이름으로 바꿈	이름을 바꿈	걱정	
14: 애들 학교 가기 때문에… 한국 국적 취득			
17: 우리 애만 잘 하고… 공부 잘 하고 잘 커지고… 우리 애만 바르게 나가고 부모가 못해주니까… 난 그것 밖	잘 버텨줘야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에 없어요…난 어떻게 되도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애만 잘 크면 난 상관없어요…난 지금가지 잘 버티고 견디고 있으니까…우리 애만 잘 컸으면…우리 애만 문제없이 잘 크면 난 더 이상 바랄게 없어요….			
16: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도 나한테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생각도 해요….걱정이 돼요….	남편폭력	폭력	두려움
1: 남의 나라에 와서 주는 대로 받으라고 무시하고 지랄하느냐고 돈도 안 주면서 소리 지르고….	지랄한다고 함 외국인이라고 깔봄 돈 적게 줌 보이지 않는 벽	무시 차별	외국인으로서의 어려움
1: 시장에 가면 아줌마들이 외국사람이라고 조금 주고 돈은 더 받아요….			
11: 한국인 친구 사귀려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벽이 있고			
15: 제가 외국사람 이잖아요. 한국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하하하.			
1: 임신했을 때 한 날은 다문센터에 가려고 버스에 탔는데 아기데리고 너무 힘들어서 학생한테 자리를 빌려달라고 했더니 외국인 아줌마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무시하고 안 비켜주고.			
15: 외국인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무시하고 차별 할 때도 기분 안 좋고 많이 그래요….			
15: 무시하는 기분이 들고요… 제가 10년 되니까요. 너희들이 이제는 보려면 보라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17: 만만하고 그런줄 알아요.			
1: 마트에 가면 외국인이라고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병원에 가면 이름이 길고 이상하다고 웃고 쳐다보고	수근거림 은근한 따돌림 자모회에서 거리감 머리부터 발끝까지 쳐다 봄	이상한 시선	
17:다들 은근히 그런 느낌…은근히 뭔가 그런 느낌… 꼭 싸우지 않아도 여자들이 그런 것 있잖아요…말 안 해도…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 그리고 누구한테 지지 않겠구나…그렇게 봐요….			
11: 특히 아이들 학교 다니면 학교 자모들하고 거리가 많이 있고 외국인 엄마라고 조금 이상하게 해요…기분 나빠요…			
15: 외국사람 와서 사는게 정말 힘들었어요. 다르데 가서는 우리 또 머리 끝까지 쳐다봐요.			
17: 똑같다고…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하면 외국 사람이라하는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11: 필리핀이나 그런 엄마들은 다문화라는 것을 안 밝히려고 학교도 안 오고 그래요…	본국 안 밝힘 색안경 중국제 무시	편견, 고정관념	
17: 좀 사람들이 외국사람이면 당연히 색안경끼고 보는 건 있어요.			
17: 당연히 있죠…. 회사에 가 보면 중국 물건 다 나쁘다 이야기해요……그런 이야기 들으 면 싫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거기서 왔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1: 한국에 젊은 사람들 못 써요.	뒤에서 어쩌구 저쩌구 다른 것은 틀린 것 불편한 차이	불편한 차이	
17: 그런 이야기 들으면 싫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거기서 왔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15: 저 그 때, 그 때 제가 아주… 상처 받은 것 있어요. 아, 한국사람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했죠? 일어나서 나가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 해요. 아 아. 이게 한국, 한국, 한국 아줌마… 한국 사람들…			
17: 거기서나 여기나 다 비슷하고 똑같고… 사람 사는 것이 거기서 거기인데…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다르지 않아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요…주변에서 그 사람들이 틀리다고 생각해요… 별로 기분 안 좋아요…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무엇을 못하면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문화가 틀려서 그렇다고 그래요….그것이 참 이상해요…다르다고 나뉘어지는 것이 기분 나빠요…나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7: 저 혼자 쓸 때에는 150만원 가지고 뭐, 1년에 한 두 번 여행도 가고 그랬는데, 이사람 만나고는 지금 그게 안 되더라구요	여행 못함 남편실업, 발등의 불 먹고살기 힘듦	빠듯한 생활	경제적 어려움
17: 가장으로서 가장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지… 그게 힘든 거지… 발등에 불이 떨어진것 아니에요?			
17: 경제력요… 경제력이 안정되어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가 힘들게 하면 막 화내요…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나중에 한이 되고… 예전에는 우리 신랑이 잘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그래서 나도 아이도 잘 키우고 싶고 하는데 입장이 그것이 아니니까 내가 다 해야 하고 생활도 그러니까….힘들어 요…			
9: 엄마 아빠 아파서 용돈 드리고 싶어요… 못해요….속상하고 아파요….	친정부모 용돈 못 드림	미안함, 속상함	
10: 남편이 잘해주니까 내가 빨리 한국생활 더 배우고 싶어요… 처음 음식 못 먹었어요….하지만 신랑이 잘했어요…(문화)많이 달라요….하지만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빨리 배워야 돼요…열심히 할 거예요…신랑이 너무 잘해줘서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신랑이 엄마, 아빠 많이 도와 줬어요…베트남 내동생이 오토바이 사고 나서 수술 안하면 죽는데 신랑이 천만원 줬어요…동생 살았어요… 신랑하고 착해요…베트남 가요…	신랑이 잘해줌 남편이 따뜻함 친정식구 도와줌	가 족	정착에 도움을 주는 주체
4: 아주 좋아요…남편이 맘이 좋아요…따뜻해요…따뜻한 사람…마음 좋아요…한국말 배우고 해요…남편이 다문화센터 같이 가요…			
12: 오빠가 많이 잘해요…행복해요…엄마, 아빠 다 잘해줘요…친정엄마처럼….다른 사람들이 집에 오면 딸내미 같다고 해요…너무 친하다고…	딸래미 같다고 함 전화해도 괜찮음		
12: 엄마랑 신랑이 잘해줘요…보고 싶으면 전화해도 괜찮데요…어영해상무님도 도와주고 식당 아르바이트 사모님, 남편 친구들 엄마, 아빠 다 도와줘요… 행복해요…많이			
16: 우리 언니…여기는 아니지만 도움 받아요….다 얘기 해요….아주 좋 요….남편 얘기도 하고 아주 좋아….	주변언니가 도와둠 고모 다 얘기해 줌		
15: 제가 고모하고 전화해요. ‘어쩌, 어쩌, 어쩌…’ 엄마한테 좀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 해 달라,			
3: 주변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요….너무 고마워요….	잘해줌 이웃이 가르쳐 줌 정이 많음	이 웃	
3: 처음에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랬는데 말이 통해서 지금은 너무 친하고 좋아요…			
14: 너무 다 잘 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다 가르켜 주니까 고맙게 생각해요			
17: 한국 사람들이 정은 있더라구요. 조금 외국… 그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12: 농협 상무님도 도와주고… 행복해요…많이	농협에서의 도움	지역 단체	
4: 동료 많이 있어요…중국사람 조금…베트남 사람 많아요…이야기 해요…조금…한국말 하고 …중국사람 만나면 중국말로 해요…남편 어때요?? 남편 이야기해요…남편 이야기만해요…	중국사람 많음 베트남 친구 있음 한달에한번씩 모임 놀러 옴	이주 여성 과의 교류	
4: 네….만나서 이야기 해요….중국사람, 베트남 사람 이야			

결혼이주여성 경험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기…기분이 좋아요…			
1: 우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하고, 친구들 만나서 좋고 모르는 것들 물어보고 많이 도움이 돼요…			
1: 네…필리핀 친구 하나요…우리집에 놀러와요… 좋아요…많이요…이야기 많이 하고 좋아요…			
13: 마흔 넘은 베트남 친구 언니 있어요…한국 친구 있어요…놀러와요…그래서 좋아요.			
16: 직장에서 한국문화, 한국말 배웠어요…아이 낳고 집에만 있으면 한국말 못 배워요…한국말 배우고 경제적으로 도와요…만약에 집에만 있으면 안돼요… 다른 사람 못 만나요…직장 가면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사람 말 배우고 다른 사람 문화도 알아요…이야기하고 말 많이 하고…아기 낳고 집에 있으면 신랑만 있으니까 빨리 못 배워요…한국말 신랑하고 똑같이 않아요…한국 사람들 다 달라요…신랑하고 발음도 틀리고 말도 틀려요…. 다른 사람 만나야 돼요…	직장에서 말배움 경제적으로 도움됨 아르바이트 사모님	직장의 도움	
12: 식당 아르바이트 사모님, 남편 친구들 다 도와줘요…			
1: 네. 지금도 다문화 센터 가서… 한국어 배워요.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도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11: 생활습관 가르켜 주고,			
11: 자격증도 따게 해주고, 직장도 이제 소개해준다고,			
10: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선생님 집에 왔어요. 다문화 선생님이 2년 알려줬어요…			
12: 아… 거기 센터에서? 말 많이 배워요. 좋아요.			
3: 한국말 조금 더 배워서 통역사가 되어서 처음 시집 온 친구들에게 한국말과 한국생활방법 한국음식 가르쳐 주고 싶어요…처음 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친구도 되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방법요 어떻게 사는지 방법도 알려주고 싶어요…한국도 말도 알려주고 싶어요…그러면 처음에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꿈을 키움	행복의 재발견	희망
15: 행복하려고 많이 열심히 해요…열심히 일해요…지금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지면서 살고 있어요…	기대감		
10: 내가 이왕 한국 시집 왔으니까 열심히 살아요…그래야 돼요… 신랑이 잘 해 주니까 힘들어도 괜찮아요….아기와 신랑 있으니까 열심히 살고 싶어요….	새로운 각오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3: 가정은 내가 직접 만들고 가꿔야 돼요….내 가정은 내가 만들고 행복도 만들어 가고 싶어요…누가 만들지 않아요….내가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행복 만듦 잊어버림 바른 원칙	현실 개척 수용	정체성 확립
15: 지금은 잊어버리기로 했어요…그래야 행복해요.			
17: 음 저는 그냥 뭐… 내가 무슨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잖아요. 그런 바른 원칙을 생각해요 내가 바르게 행동하면… 이때 까지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 밖에 없었어요. 다 뭐 아줌마들 **하면서 산다는데, 내가 행동을 똑바르게 남에게 손가락질 안하면 누가 날 어찌 그리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17: 나 없을 때 모르지만…처음에 갈군다 하잖아요…자기들 끼리 그러는 것…저는 직통으로 직선적으로 짜증나게 하면 확 들이 받아요….	확 들이 받음 사람 만남 인내력	대응 방식 터득	
9: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신랑은 노우….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17: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참을 것 참고 너그러워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인내력이 생겼어요….이 문화를 참고 견뎌 내야겠다고….			
11: 무조건 알아야 하니까 언어가 통해야 돼요…언어가 통해야 생활을 하든 적응을 하든 하니까…언어와 생활습관 필요….	무조건 통해야 함	말의 중요성	적극적인 동화
9: 아니요… 안해요… 내가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한국말 배워야지요……	말을 배워야		
9: 내가 한국말 배워야 해요….어려워요…내가 빨리 배워야 돼요….아기 크니까 한국말 빨리 배워야 돼요….혼자 빨리 배워야 돼요….			
3: 한국에서 내가 사니까 내가 배워야지 하고 생각해요….그리고 한국사람 만나면 베트남 말을 안하니까 한국말 배워야 해요…			
15: 내가 한국에 사니까 내가 해야 돼요….내가 해야 돼 요….내가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먼저 해야 돼….내가 먼저 알아서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배워야	한국에 사니까	
1: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말, 한국문화 많이 배우려고 노력해요			
12: 한국사람이고 한국에 사니까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 했어요…내가배워야지 생각했어요….제가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배워야 돼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사니까		
1: 그런데 한국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몽골은 못사는 나라라고만 생각하고 달라요	편견	정착 장해	진정한 다문화 구축필요
11: 한국의 문화만 싹~ 이러는 분위기인데, 필리핀 이런 데는 문화가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자꾸 이렇게 여기,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문화 배워라 그러면 그게 안 받아 지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렇게 가르쳐서(박수를 치며)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얘만 받아들여라, 이 사람만 모르는데	일방적 동화주의 거부감		
1: 한국사람, 몽골사람 나누지 말고 그냥 다 같은 사람이니까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해줘야	관용과 포용	
15: 아니, 똑 같은 한국 사람인데 좀 양해 해 주고, 이해 해 주고, 도와주고 그런…	좀 양해해야		
15: 뭐 TV나오는 거나 그런거, 뭐… 음… 자기 자녀, 자기 얘기 다문화 얘기 많잖아요. 학교에서… 잘 놀 수 있게끔, 잘 이해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똑 같이 한국 사람 같이 놀고 그런 거….	똑같은 한국 아이		
11: 가끔 중국에서 결혼하고 온 사람들이 왜 나만 한국말, 한국문화 배우라고 하는지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신랑은 우리말, 내 나라 문화 하나도 모르면서 나만 적응하고 배우라고 하니까 억울하고 답답하데요…자기들 생각하기에는 그렇데요….	한국문화만 배우라는 것은 억울	상호 이해	
11; 일단은 여기에 오시는 분들만 이해하라고 하지 말고 결혼하는 여성들의 문화나 언어를 남편들이 조금이라도 먼저 이해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훨씬 생활하기 편할 것 같아요	남편들도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 알아야		
15: 한국 사람 좀 교육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도 배워야	상호 교육	
15: 태국 문화와 태국에 대해서 알려줘 보고 싶어요	태국문화 소개		
11: 여자들은 어차피 적응하려고 노력하는데 남자는 하나도	남편 노력안함	남편도	가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다른 것보다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싸우지 않고 때리지 말고 남편 자녀 교육 참여 남편 책읽어주고	변해야	족 배 려 절 실
22: 아… 싸우지도 않고 서로 얘기하고 때리지 않고 욕하지도 않고…			
15: 아이 아빠가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소리를 질러요….속상해요…아기 아빠가 안르쳐 줘요…아기들에게 좀 공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숙제하고 공부할 때 아기 아빠가 관심 갖고 도와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1: 신랑은 아기들한테 책 안 읽어줘요….			
13: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가르쳐주면 좋겠어요…몰라서요….	시어머니가 가르쳐줘야	다문화 가족 교육	
16: 가족하고 신랑요….가족이 좀 더 이해하면 도움 되어요…가족들이 같이 같이 배워서 같이 같이 생활하고 같이 같이 배워요….	속을 모름 다문화가족 같이 배워야		
9(남편): 엄마가 혼자 산다고 해서 내가 힘들어…엄마와 동생들 속을 모르잖아…내가 속 터져….힘들다고 나도…			
18: 러시아책이 없어요	중국, 베트남중심 소수자 배려 없음 시끄러움	열악한 환경	다 문 화 교 육 패 러 다 임 바 꿔 야
18(남편): 자금 ○○같은 경우에도 각 언어별로 통합이 잘안되요. 국가에서도 중국쪽에 위주로 되다보니깐 선생님들이 뭐 인터넷 찾고 별짓거리를 다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러시아어를 좀 한다고 해서 남편도 있다고 해서 한국말로 할라니깐 또 안되더라구요			
18: 아니요 너무 시끄러워요 공부못해요			
8: 지속적으로 하고, 겹치지 않게 하고. 그때 그때 일시적으로 그냥 많이 하잖아요	임시적 형식적 기본적 일방적	교육 프로 그램 개선	
9(남편): 다문화센터에서 1주일에 두 번씩 왔는데 형식상에 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돼요…기본적으로 내가 남편으로 보기에 많이 미흡하지…왜냐하면 글씨가 문제가 아니고 베트남과 다르니까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생활에 필수적인 것…그게 더 필요해…양식…생활양식이 필요해…			
18:(남편)그게 안맞아요 그게 아예 모르고 처음부터 들어가면 그 수준에 맞지만 이 사람은 이정도 고도 까지 올랐는데 거기서 같이 나가니깐 싫어하는 거에요			
9: 처음에 한 번요…너무 멀어요…다문화센터 안 가요….너무 멀어요…답답해…답답해	너무 멀어 교통이 나쁨 신랑이 늘 태워다 줘야 한 번도 못 감 가까이에서 배워야	접 근 성 열 악	
3: 다문화센터는 있지만 너무 멀어서 못 가는데			
1 : 근처에서 한국말 배우고 친구들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다문화센터는 너무 멀어요.버스 타고 교통 나빠요….아기도 둘인데 너무 멀어요…혼자 다니는 것 자신 없어요…공부 안했어요….			
11: 맞아요….멀기도 하고 교통이 불편하면 신랑이 태워다 줘야 하는데 힘들어요…			
11: 신랑이 왔다갔다 데려갔다 데려오고 해야되는데, 그것도 한 개의 일 이잖아요.			
10: 다문화센터는 안 가요…바쁘고 거기가 멀어서 힘들어요… 농협에서 하는 다문화대학은 갔어요…가깝게 있고 데리러 와요.			
16: 다문화센터에 한 번도 안 갔어요…너무 멀어요…교통 많이 불편해요.			
9(남편): 가까이서 배울 수 있어야 돼….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19(남편): 이렇게 일정에 맞춰서 해야하기 때문에 차를 또 태워다주고 뭐 또 이래야 하니깐			
3: 한국말 조금 더 배워서 통역사가 되어서 처음 시집 온 친구들에게 한국말과 한국생활방법 한국음식 가르쳐 주고 싶어요…	통역사 되고 싶음	전문적 일자리 필요	일자리 확대 절실
1: 통역해서 배워서 하고 싶어요…사실은 친구가 공장에서 일해요…나중에 아기가 크면 밖에 나가서 일 하고 싶어요.			
5: 한국말 공부하고 나중에 미용실 해요…하고 싶어요 …심심하니까…	다문화코디네이터		
18: 일단은 경제적으로 저기 하니까, 뭐 일자리 같은거 해주고 또 그거 할 수 있게끔 그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능력 같은거 갖춰 주게끔 해 주는 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사일은 신랑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신랑이 그 능력이 안 되면 여자 혼자서 농사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미용실 개업 자격증 코스		
15: 선생님. 교육 받는데, 만약에 제가 선생님 되면 자격증 선생님 있으면, 그러니까 어디서 어린이집 해서 일 할 수 있냐, 외국 사람인데, 한국 말도 잘 모르는데, 자격증만 있어도 누가 나 써 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 했어요.	선생님 되고 싶음		
2: 나중에 아기가 크면 밖에 나가서 일 하고 싶어요…친정도와주고 싶어요…	일하고 싶음	맞춤형 일자리	
13: 아기 낳고 7살에 학교에 가니까 일하고 싶어요…안 힘든 일로…	자녀 양육 후 직장생활		
9: 회사 가고 싶어요.			
10: 나중에 애기 크면 직장다니고 싶어요.			
12: 네. 신랑 도와서요, 일 다니고 싶어요. 가만 있으면 누가 돈 주냐…	일 다님		
14: 근데 나라에서 좀 우리 외국사람 이니까 좀 공장에나 만들어서, 가까운데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주말 일 안하구요, 그냥 평일만. 평일 회사에나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구요. 애들 어린이집 보내는 시간에 우리집은 일 하고 싶은데, 할 일이가 없는 거예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전용일자리		
18(남편): 우리는 스스로 ○○시내 어디 그… 아니래도 다른 일을 할 때 한국말을 한국인처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뭘 알선할 수 있는… 알선해주고… 뭐 있으면 좋죠 뭐… 그랬으면 여기에 있었을지도 몰라. 직업이 있으면…	평일근무일자리 일자리 알선		
14: 그 신랑들이 다 일자리가 없어요… 그 그래서 돈을 못 버니까 힘들고….	다문화가족 남편 취업	남편 취업	
3: 농협은 가깝게 있고 여행도 보내줬어요….결혼해서 5년 됐는데 여행 처음 갔는데 너무 좋아요…경복궁도 가고… 연수원……	지역농협의 다문화대학 유용	단체 참여	지역 사회 단체 참여 필요
18(남편): 여기 그 ○○면이면 ○○면. 면 단위 정도로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있으면 좋지… 그러면밑에 노인회관처럼 장소가 제공이 되가지고 주기적으로 자기들이 교류도 하고 한국어 교육도 하고 한국 문화라던가… 지금 ○○시청에서 와서 교육받으라고 하는건 뭐 그런거지뭐… 그런게 주기적으로 계속 있으면 뭐 누가 꼭 몇월 몇일날 모이자 이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가서 서로 나누고 쓰면은 자기들이 암튼 여기 보니깐 베트남 꽤 많은데 네 서로 위로가 되지않겠냐고	교류 공간 필요	지역 단위 교류	
17: 그니깐, 시골에 사니깐 그건 좀… 아무래도 있잖아요 학원같은데 보내주면 좋은데 지금 안돼요… (학교에 바라는	교육환경개선	환경 개선	

결혼이주여성 기대의 본질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주제
점) 필요 없어요….뭐 한다고 하는데 돈 받고 사교육 시키는 것 보다 못해요….			
17: 우리집 지붕이 새요. 하하…지붕이나 좀	주거환경개선		
18(남편):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외국인 등록증…외국인 등록증 하나 만드는데도 엄청 힘들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서로 연애결혼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일정한 돈을 내고 외국인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한거거든요. 그래서 결혼비자 내고 뭐 이렇게 등록증 만들고 이런 것도 다 제가 했어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무슨 서류가 또 필요하다고 하면 해가지고 대사관 통해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외국인 등록증 하나 만들었고….의료보험혜택 기본적인 그런 것도 안 되니깐…국인 등록증이라도 있어야 의료보험이라도 된단 말이죠.	외국인 등록증 쉽게 받았으면	제도 개선	기타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재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303)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KIHASA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1년	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9,000원
	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에 대한 분석	조재국	미정
	11-03	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산업화전략	이상영	미정
	11-04	약제비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의약품관리 방안	박실비아	미정
	11-05	식품안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아젠다개발 등 추진전략수립	정기혜	미정
	11-06	소비자중심의 유기농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곽노성	미정
	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미정
	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미정
	11-09	인구집단의료이용의 형평성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해	김동진	미정
	11-10	통일대비북한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대응 방안	황나미	미정
	11-11	건강보험 보험료부담의 공정성 제고 방안	신영석	미정
	11-12	노후준비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 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미정
	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미정
	11-14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미정
	11-15	장애연금제도발전방안연구: 장애·장해·장애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미정
	비발간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서비스 제공	강유구	미정
	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미국, 영국, 호주, 일반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11-16-2	호주사회보장체계연구: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대응	여유진	미정
	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 수준에 관한 연구	고경환	미정
	11-17-2	사회서비스공급기관의 복지경영도입과 정책과제: 사회서비스부문의 재정평가	고경환	미정
	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미정
	11-17-4	2011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11-17-5	공적연금재정평가와 정책현안분석	윤석명	미정
	11-17-6	사회복지재정 추계모형개발	원종욱	미정
	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미정
	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 정책 개선 방안	이태진	미정
	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미정
	11-20	계층구조 및 사회 이동성 연구: 분석과 대응방향	여유진	미정
	11-21	탈수급 제고를 위한 기초보장 패널구축: 역동성 평가를 위한 양적·질적 패널 구축 및 기초연구	최현수	미정
	11-22	기초생활보장재정평가 및 추계모형개발	김태완	미정
	11-23	공공부조정책내용과 집행의상호조응성 분석	이현주	미정
	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평가 및 정책대안 모색	이태진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모니터링 및 현장보고	최현수	미정
	11-25	사회복지제도운영체계 국제비교연구: 정부효율성이 높은 국가의 복지서비스행정을 중심으로	강혜규	미정
	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미정

	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미정
	11-28	지역별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미정
	11-29	장애노인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미정
	11-30	장애인복지지표를 통해 살펴본 OECD국가의 장애인 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미정
	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강혜규	미정
	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분석	이삼식	미정
	11-33	건강지표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미정
	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미정
	11-35	사회복지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미정
	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미정
	11-37-1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이삼식	6,000원
	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 (외부)	6,000원
	11-37-3	출산관련행태변화에 따른 건강아출산(Healthy Birth Outcomes)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미정
	11-37-4	소득계층별출산·양육행태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미정
	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 (외부)	미정
	11-37-6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 정책 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미정
	11-37-7	지자체저출산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미정
	11-37-8	외국의 이민정책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 (외부)	7,000원
	11-37-9	베이비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미정
	11-37-10	저출산고령화시대의 노인인력활용패러다임모색	이소정	미정
	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미정
	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분석	선우 덕	미정
	11-37-13	예방적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오영희	미정
	11-37-14	고령친화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미정
	11-37-15	저출산고령사회대응대 국민인식 조사 연구	오영희	미정
	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이삼식	미정
	11-37-17	선진국고령사회대응정책동향	정경희	미정
	11-37-18	저출산고령사회대응관련 쟁점 연구	이소정	미정
	11-37-19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미정
	비발간	국제심포지움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사회연구관련 학술대회	이삼식	미정
	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 (외부)	8,000원
	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이삼식	미정
	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구축 및 운영	오영호	미정
	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방안 연구	이상영	미정
	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 지원	김동진	미정
	11-39-3	아·태지역건강영향평가의 동향과 정책과제	최은진	미정
	11-39-4	건강영향평가 DB구축	서미경	미정
	11-40-1	보건사회기후변화모니터링센터운영	김남순	미정
	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미정

	11-41-1	아시아복지국가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홍석표	미정
	11-41-2	한국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미정
	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김승권	미정
	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김미숙	미정
	11-44-1	한국의 복지실태	남상호	미정
	11-44-2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미정
	비발간	한국의 사회복지분석	남상호	미정
	11-45	200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7,000원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정책방향 모색	박실비아	미정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분석	조재국	미정
	11-46	2011년 인터넷건강정보평가시스템구축 및 운영	송태민	미정
	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	이연희	미정
■ 2010년	10-0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영	5,000원
	10-02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박실비아	5,000원
	10-03	해외의료시장 개척의 투자효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조재국	7,000원
	10-04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 요인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정기혜	6,000원
	10-05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김혜련	7,000원
	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곽노성	7,000원
	10-07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김정선	5,000원
	10-08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신영석	7,000원
	10-09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5,000원
	10-10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원종욱	5,000원
	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원
	10-12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노대명	8,000원
	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완	7,000원
	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원
	10-15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대명	7,000원
	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8,000원
	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자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조응성 분석	여유진	7,000원
	10-18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원
	10-19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6,000원
	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저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원
	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8,000원
	10-22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원
	10-23	민간 복지자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7,000원
	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원
	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7,000원
	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균	6,000원
	10-28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0	장영식	10,000원
	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6,000원
	10-30-1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17,000원
	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원

	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용찬	5,000원
	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감나영	6,000원
	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 관계 연구	김은정	5,000원
	10-30-6	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원
	10-30-7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 (외부)	6,000원
	10-30-8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원
	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7,000원
	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식	6,000원
	10-30-11	입양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10,000원
	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정수	6,000원
	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6,000원
	10-30-14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염지혜	5,000원
	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원
	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30-17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원
	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원
	10-30-19	예비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원
	10-30-20	신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선우덕	5,000원
	10-30-21	신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7,000원
	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8,000원
	10-31-2	2010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9,000원
	10-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원
	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6,000원
	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원
	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원
	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원
	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원
	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원
	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5,000원
	10-32-3	건강마을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원
	10-33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3년차)	오영호	9,000원
	10-34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14,000원
	10-35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10,000원
	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석표	8,000원
	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원
	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곤	6,000원
	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Ⅱ)	정영호	11,000원
	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	정영호	7,000원
	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7,000원
	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원